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일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558호

Thursday, May 21 2026 A

시사주간 타임 “시진핑, 이르면 내주 북한 방문 예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20일 보도했다.

타임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맞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북이 실제 이뤄질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된다.

시 주석은 지난 2019년 6월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찾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시 주석의 방북 추진이 일본의 최근 안보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타임은 분석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 이후 60년 만에 살상 무기 수



지난 2019년 6월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등 안보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한영혜 기자**

미국, 쿠바혁명 라울 카스트로 기소

미국·쿠바 긴장 고조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막후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95)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실상 쿠바를 지배하는 실질적 수장을 미국 사법당국이 직접 겨냥하면서,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태로 얼얼은 중남미 정세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기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쿠바가 다음 차례”라며 군사적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가 외국의 정사급 지도자를 기소한 사례는 드물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은 쿠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를 가해 사실상 쿠바를 전면 봉쇄 중이다. 이에 따라 쿠바 전역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하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기소는 1996년 미국 마이애미 기반 쿠바 망명 단체인 ‘구출의 형제’들이 운용하던 항공기 2대가 쿠바군에 의해 격추돼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라울 카스트로는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었다.

미국의 기소로 고령의 카스트로가 감옥에 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칼을 빼 든 이유는 명백한 ‘전술적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다.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 정권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막후 실력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형 피델 카스트로, 친구 체 게바라와 함께 1959년 쿠바 혁명을 성공



라울 카스트로 [로이터-연합뉴스]

시킨 후부터 약 반세기 동안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피델이 건강 악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10년간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는 퇴임 후에도 권력의 장막 뒤에서 정·계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표면적 국가수반이라면, 쿠바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라울이 이끄는 카스트로 가문에서 나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쿠바 정부는 라울 카스트로의 기소와 관련해 현재까지 논평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국(미국) 스스로가 공헌한 덕분에 우리 반제국주의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그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여기서 “제국의 공헌”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와 이번 기소 같은 압박이 오히려 쿠바 내부의 반미 결속력을 키워줬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쿠바는 지난 1902년 5월 20일 스페인으로부터 공식 독립했으나, 이후 1959년 쿠바 혁명 전까지 오랜 기간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

환율, 미·이란 종전 기대...1,496.70원 마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0원 넘게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다.

21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10원 하락한 1,496.7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506.80원과 비교해 10.10원 떨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매체 알 하

다스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최종 합의문 초안을 발표하기 위해 내일 이란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알 하다스는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란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문 초안이 몇 시간 내로 발표될 수 있다”며 양측은 합의문 최종 문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초안을 이번에 발표한 뒤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 협상은 최종 단계”라며 “우리는 이란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공격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으나 시장은 합의 가능성에 더 크게 베팅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감 속에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 미국 주가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선 뒤 오름폭을 확대했고 미국 국채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봉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풀변지매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삼전 '100조 파업' 일단 멈췄다... 1시간 앞두고 잠정 합의

'100조원대 피해 파업' 위험을 일단 피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으로 예정된 21일 0시를 단 한 시간여 앞두고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0일 오후 10시 45분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정부를 대신해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4시20분부터 경기도 수원에 있는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6시간가량 추가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4시간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것이다. 그만큼 파국을 피하는 공감대가 컸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노사 교섭대표는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같이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막판 교섭 팀 김 장관이 조정자 역할을 했다. 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다. 기술도 노사 관계도 제일이라는 삼성답게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잠정 합의 도출과 동시에 공동투쟁본부는 투쟁지침 3호를 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김성룡 기자

령해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초기업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6개월여간 혼신을 다해 투쟁해 온 결실"이라고 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배분이었다. 그간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해 왔다.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적자에 허덕이는 비(非)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도 수익원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논리다. 결국은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최 위원장은 "회사에서 1년간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 이해해 줬고, 그에 따라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내부 구성원의 잠정 합의안이기에 때문

에 최종 합의까지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파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20일 오후 10시30분쯤 홈페이지를 통해 "21일~6월 7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조합원은 22일 오후 2시~27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한다"고 공지했다. 부결 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초기업노조 측에 따르면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의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한국 제조업 전반에 긴장감이 커졌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 속에 삼성전자(발) 생산 불확실성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와 수출 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한국 제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메이드 인 코리아' 신뢰 자산

이 시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과 중국, 대만 등에선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 사안을 예의 주시하면서 반도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도체 생산이나 출하에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경쟁하는 키옥시아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 경제매체 시나파이낸스는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 가능성이 중국 메모리 기업들에 고객사 검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대만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이 메모리 관련주 상승 재료로 작용했다.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나야테크와와워텍 등 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현지에서는 삼성전자 공급 차질 우려로 대체 공급망 기업들에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중국의 추격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까지 겹치면 범용 D램 시장 재편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경희 기자

청와대 "삼성전자 노사 대승적 결단 감사"

여당 "극적 타결 환영"

청와대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극적으로 전해진 타결 소식에 대해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노조 총파업이 반도체 산업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그동안 대화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타협과 결단을 선택한 노사 양측의 책임 있는 자세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극한 대립과 파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속에서도,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과제를 충돌 아닌 타협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걸 재차 확인했다"며 "생산 현장의 안정과 노사 간 신뢰 회복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훈 장관의 중재 역할에 대해 "당장 몇 시간 뒤 파업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장관이 직접 교섭 조정에서 서머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할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재태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참 잘됐다"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김 장관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다"고 적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아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잠정 합의안은 투표를 통과해야 최종 효력을 갖게 된다.

한영혜 기자

'20년 핵잠의 꿈' 수면 위로 해군, 소요 제기로 사업 공식화

(특정무기체계에 대한 요구 제기)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이하 핵잠)과 관련한 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해군이 이에 앞서 정식 소요제기(필요한 특정 무기·전력 체계에 대한 요구 제기 절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핵잠 개발 사업은 20년 넘게 비핵(庇匿) 사업으로 묶여 있었는데, 해군의 소요 제기는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일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핵잠 건조와 관련한 소요 제기서를 합동 참모본부에 제출했다. 통상 각 군이 합참에 소요 제기를 하면, 합참의 심의를

거쳐 합동참모회의에서 최종 소요 결정을 하게 된다. 통급과 무장 등 작전운용성능(ROC)도 여기서 정해진다.

해군이 소요 제기를 했다는 건 기존 재래식 잠수함과 동일한 무기 체계 획득 절차를 거쳐 핵잠을 도입하겠다는 뜻이 된다. 그간 비핵 사업으로 추진해 온 핵잠 관련 각종 기술 개발을 공식화한다는 의미다.

한편 19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엘리슨 후커 정부 차관이 몇 주 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한다. 이는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킵오프(출범)' 회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워싱턴 날씨 (°F)

22일(금)	57-49	☁	25일(월)	72-63	☀
23일(토)	57-51	☁	26일(화)	75-64	☁
24일(일)	66-59	☁	27일(수)	83-61	☁

5월 21일(목) 66-5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p>센터빌 중앙상로교회 근처 5 에어커 전월주책 \$1,050,000 특정</p> <p>최신 수영장, 차고 2, 방 3, 욕 3</p>	<p>레스턴 싱글홈 엘리 크레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799,000 특정</p> <p>차고 2, 방 5, 욕 3, 워드아웃 부엌</p>	<p>현역 럭셔리 타운홈 \$850,000 특정</p> <p>차고 3, 방 3, 욕 3</p>
---	--	---

REALTY 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새집 구입시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밀하게 봐드립니다.
구입전 꼭 조언을 얻으셔야 합니다.
새로 집 지으실 분 건축업체 및 시공업체 소개해드립니다.

바이오/생명공학 기업 CGMP 시설 및 LAB 협상/구입해드립니다

사무실, 병원, 창고, 공장 / 렌드 / 구입 찾아드리고 좋은 가격에 협상해드립니다.
서류 검토와 유리한 협상 전문

NEW HOME

사업체 & 상가 매물 안내

워싱턴시 정부업무건물 델리
안정적 매출, 임대료 한달 \$2750
매매가 27만불

세탁소/ 리즈버그 지역 / 공장
미진출아 남는것이 많습니다 / 매매 25만불

메릴랜드 델리 매매가 7만불

맥도날드 건물
구입하셔서 임대수입 얻으실분 찾습니다

CAR WASH
찾아드리고 매매해드립니다
좋은 가격에 협상해드립니다
세차장 리스팅 원비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리얼티링크 슈나이더팀 대표
"내 집 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승경호**
k@dwelld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 집 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버지니아주 선거구 재조정 판결 후 '급변화'

연방 하원 선거구도 민주당 후보들 '혼란'

이번 달 대법원 판결로 버지니아주의 현행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가 유지되자 선거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민주당 후보들이 새롭게 설정된 선거구와 관련된 선거 운동을 중단하거나 종료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주 4월21일에 실시된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를 무효화하면서, 주 의원들이 헌법 개정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연방 대법원은 개입을 거부함에 따라 버지니아주의 현재 연방 하원 선거구는 2026년 선거까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제안된 선거구 지도에 따라 이미 시작된 선거 운동들은 이달 말 버지니아주의 후보 등록 마감 일 전에 선거 운동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아니면 기존 선거구로 옮길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 후보 여러 명이 선거운동을 종료하거나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북버지니아의 제7선거구 신설 후보들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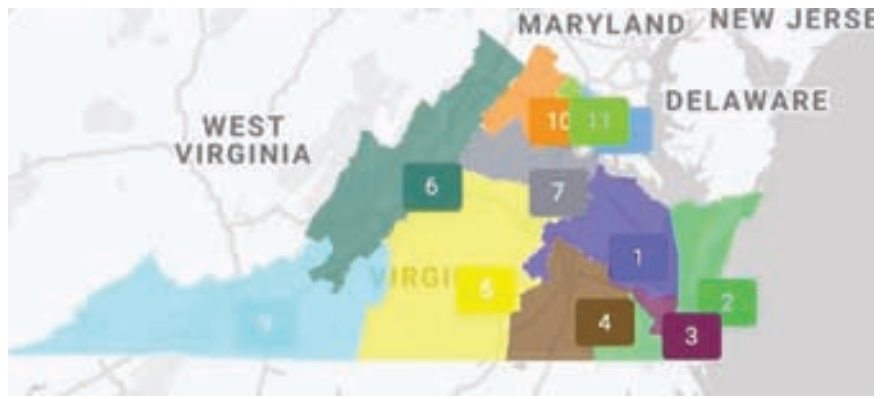
전직 연방 검사 JP 쿠니는 이번 판결

이 "나의 의회 선거 운동의 종말을 의미한다"면서도 "부패와 무법 행위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사람 아즐란 살립 주 상원의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번 캠페인은 끝났지만,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델 맥클루어 주 하원의원은 "제가 대표하고자 했던 선거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공공 접근 프로젝트의 후보자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18일 현재 여러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출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이는 판결 이후 선거



2021년에 승인한 버지니아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사진=버지니아 대법원 제공)

구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버지니아주의 연방 하원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은 5월26일이고, 예비선거는 8월4일에 예정되어 있다.

김성한 기자

애난데일서 AAPI 문화유산 행사 열린다

23일 '아일린 가넷' 공간 음식·공연·미술 등 다양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AAPI Heritage Month)을 기념하는 행사가 23일 애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문화행사는 페어팩스카운티, 북버지니아공원관리국,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주최한다.

애난데일 소방국 옆 '아일린 가넷 시민공간'에서 이날 오후 2시30분 먹기 대회를 시작으로 진행될 행사의 프로그램은 개회식, 아시아 각 나라 전통 춤 공연, 패션쇼, 합기도·킥복싱 시범, K팝 공연 등이 준비된다. 50개 이상의 음식 부스와 판매 부스가 설치되는 야시장은 밤 9시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애난데일서 대규모 아시아 문화행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모습.

또한 Make Us Visible VA는 이번 행사에서 3세에서 1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회상, 미래의 비전: 문화와 유산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주제로 미술 공모전을 개최하는 데, 참가 희망자는 작품 사진과 이름, 그리고 학년을 적어 오는 22일까지 makeusvisiblevirginia@gmail.com

으로 보내면 된다. 수상자는 AAPI 축제에서 오후 3시30분에 발표한다.

주최 측은 이번 축제가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AAPI 커뮤니티의 역사와 공헌을 되새기고, 지역사회 화합과 공공 봉사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성한 기자

'버크' 버지니아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선정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레스턴·센터빌 등도 꼽혀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한인이 밀집해 있는 '버크'가 선정됐다. 또 리스버그, 레스턴, 알링턴, 센터빌 등 도시들도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US뉴스&월드리포트는 '2026-2027년 살기 좋은 도시'를 발표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버크를 1위로 뽑았다. 또한 버크의 우편번호 22015는 북버지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편번호 20곳 중 최정상을 차지했다.

US뉴스는 버크에 대해 "다른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버크에는 약 4만1000명이 거주하며,

평균 연령은 40.5세이다.

가구당 중간 소득은 18만4339달러이고, 주택 중간 가격은 71만5666달러이다. 평균 통근 시간은 30분이다.

US뉴스는 이번 조사를 위해 △주택비 등 거주비용 △부대비용 △범죄율 △판매세와 소득세 △실업률 △날씨 등을 평가했다.

또한 살기 좋은 곳인지, 탄탄한 고용 시장을 갖추고 있는지,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도시 순위를 매겼다.

특히 데이터는 연방 인구조사국, 연방상무부, 연방준비제도, 경제분석국 등 정부 및 민간 기관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했다.

한편, 버크는 워싱턴을 포함해 전국 250개 도시 중 108위에 올랐다.

김성한 기자

'한국 사위' 래리 호건, 리더십 연구소 설립

'한국 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사진)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범사회적 리더십 연구소를 설립했다.

17일 호건 전 주지사는 메릴랜드주

인문대학인 워싱턴 칼리지에 '호건 연구소' 설립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워싱턴 칼리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50년 전 건국 이래 미

국을 이끌어 온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민주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앞으로 호건 연구소는 워크숍, 세미나

및 공개 포럼을 통해 차세대 지도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호건 연구소는 다가오는 가을에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때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던 래리 호건 전 주지사는 2024년 메릴랜드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앤젤라 울스브룩스 후보에게 패배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김성한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제사상 연합회 교수승격 심사
- 심혈관계질환 중의약학사
- 임상 26년 경력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oorientalmedicine.com/

현스 홈케어 서비스

HYUNSH HOMECARE SERVICE

Always With You!

30년 삼성 HR 경험, 이제는 홈케어 서비스와 함께 합니다.

“사랑을 아는 경험, 사람을 돌보는 마음 - 현스 홈케어”

어르신 상담
Senior Consulting Service

- ▶ 맞춤형 개인 간병 서비스 (치매 상담제공 - CDP)
- ▶ Medicaid 신청 및 각종 정부 지원 안내 (푸드 스탬프, 교통 지원 등)
- ▶ Senior Living 안내 (시니어 아파트, 그룹홈 등)
- ▶ 병원 및 약국 업무 대행 서비스
- ▶ 의뢰기기 및 개인용품 주문 서비스

복잡한 롱텀케어 신청 도와 드립니다.

간병사 모집
Caregiver Recruitment

- ▶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 ▶ CNA 교육 지원 (시험 응시료 1회 지원, 취득 시 추가 혜택 제공)
- ▶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 ▶ 안정적인 근무 배정 및 경력 관리 지원
- ▶ 친절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TEL: 703.507.2492 Mr. 배 571.334.3963 Mr. 윤

FAX: 571.789.2234

Hyunshhomecare@gmail.com
2834 Hill Rd., Vienna, VA 22182

www.hyunshcs.com

멘토 심포지엄 열기, 멘티 프로젝트로

코윈OC 행사 150여 명 참가
8월까지 기사·보고서 작성
이수자에 인턴십 포함 포상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 미 서부 오렌지카운티 지부(회장 김지현, 이하 OC지부)가 최근 성황 속에 막을 내린 ‘청소년 리더십·커리어 멘토십 심포지엄’의 열기를 멘티 심화 프로젝트로 이어가고 있다.

OC지부는 지난 2일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차세대 한인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외에 학부모까지 150여 명이 참가했다.

크리스노 교수, 앤 박 판사, 테리 임 변호사,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수지 최 UC어바인 매니저 약사, 윙 장 인튜이트 부사장, 채상원 IDS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링 디렉터, 존 최 스파이스트 라이브 대표, 최매선 패밀리 너스 프락티셔너 등 각계 전문가 9명은 멘토로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프레드 정 시장은 시 최초 한인 시장으로서의 경험을 나누며 “자신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는 리더를 보는 것



코윈 OC지부 개최 청소년 리더십·커리어 멘토십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코윈 OC지부 제공]

제가 청소년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약사는 여러 번 직장을 옮기고 가주주 이사와 약사 시험을 다시 봤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꼭 똑똑하거나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경험을 쌓으라”고 격려했다.

존 최 대표는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작게 시작하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학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멘토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빅토리아 박양은 “멘토들과 대화를 나누며 회복력과 평생 학습의 가치, 진로의 다양성을 배웠다”고 밝혔다. 에릭 김군은 “한인으로서 같은 뿌리를 가진 패널리스트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OC지부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오는 8월까지 4개월간 멘티들이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4가지 심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심화 프로젝트 중 심포지엄 현장 스케치와 기사 작성은 지난 10일 마감됐다. 나머지 프로젝트는 ▶멘토와의 질의응답 내용 기록 정리

▶리더십, AI와 미래 직업 등 주제에 대해 이 작성 ▶커리어 탐색 리포트 작성으로 각각 6, 7, 8월에 마감된다.

OC지부는 심포지엄 참석 후 2개 이상 프로젝트를 완료한 학생에게 성취상을 수여하고, 4개 프로젝트를 모두 끝낸 학생에게 인턴십 기회와 함께 연방상원의원상, OC지부 회장상을 준다. 김지현 회장은 “학생들이 한인 정체성을 깊은 뿌리로 삼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오늘의 학생들이 훗날 또 다른 세대의 든든한 멘토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강석희 후보 기금 모금 ‘순풍’ 두 달여 새 11만7000불 모아

강석희(사진) 어바인 1지구 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의 기금 모금 캠페인에 순풍이 불고 있다.



강 전 어바인 시장은 이달 15일 현재까지 11만7000달러를 모았다. 지난 3월 1일 어바인의 캐롤, 유진 최씨 부부 자택에서 모금을 시작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룬 성과다.

강 전 시장은 오렌지와 LA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한인들의 호응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모금액을 늘려왔다. 최근엔 어바인의 다리아몬드 잼보리 쇼핑센터 소유주 알레시아 슈, 정병화씨를 비롯한 OC 상공인들이 각각 개최한 후원회에 잇따라 참석했다.

강 전 시장은 모든 후원금을 이익집단 또는 기업이 아닌, 260여 명의 개인 기부자를 통해 모았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 캠페인 웹사이트(sukheekang4irvine.com)에서 우측 상단의 donate(기부)를 누르면 크레딧 카드로 후원할 수 있다.

수백만불 피해 겹돈 사기 의혹

한인 치과 매니저 계모임 주도
지인 상대 투자금·차용금 먹튀
피해자 수십 명 소송 준비 단계

LA한인타운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겹돈 사기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수십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경찰 신고와 법적 대응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LA한인타운 내 S치과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김모씨가 주도해 온 계모임에서 발생했다.

김씨와 계모임을 함께했던 미용실 원장 이모씨는 “오는 27일 겹돈 3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며 “현재 확인된 해당 계모임 회원들의 피해액만 수백만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제보에 따르면 계모임을 운영해 온 매니저 김씨는 해당 치과에서 15년 이

상 근무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본지 확인 결과 김씨는 최근 치과에서 해고된 뒤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제보자인 박모씨는 “한인사회 계모임은 계주 자체보다 지인을 믿고 회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김씨가 여러 사람에게 자신이 계주라고 하며 돈을 받았는데, 이 중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계모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피해 규모는 회원당 적게는 2만 달러에서 많게는 20만 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뿐 아니라 해당 치과 관계자들도 피해를 입었다.

제보에 따르면 김씨는 치과가 2호점을 준비 중인데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지인 20여 명에게 돈을 빌렸고, 관련 피해액만 5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 제보자들은 김씨가 환자 치료비와 견적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고, 치과 원장의 체크 서명을 도용해 자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19일 해당 치과 측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치과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김씨의 사기 행각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한인사회 특유의 지인 중심 금전 거래 문화를 지적했다.

한 피해자는 “이민사회에서는 서로 어려울 때 지인끼리 돈을 빌려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김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식사를 자주 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어 보였으며 대인관계도 좋아 계모임이나 투자 제안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송모씨는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임시로 자금을 돌려쓰는 경우도 있지만 김씨는 어느 시점부터 갚지 않았다”며 “3년 전부터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후 돈거래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씨는 “계모임과 사기로 모은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호국보훈의달 행사 줄 잇는다

OC 한미 향군 단체들
현충일, 6·25 등 기념

한국 호국보훈의 달인 6월, OC에서 관련 행사들이 줄이어 열린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미 남서부지회(회장 이승해)는 지난 16일 가든그로브의 한식당 개나리 본가에서 월례회를 갖고 내달 열릴 행사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엔 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회장 박광정, 이하 남서부지회), 예비역기독교인회 미 남서부지회(회장 김현석 목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오미에 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 사무처장은 호국보훈의 달 행사들을 공개했다. 먼저 현충일인 내달 6일(토) 오전 11시 오크데일 메모리얼 파크에선 남서부지회가 주관하는 현화식이

열린다. 이어 20일(토) 오전 11시엔 헌팅턴비치 교회에서 제1회 파더스테이 감사 잔치가 열린다. 이 행사는 한, 미 양국 재향군인 관련 단체들이 함께 마련한다.

6월 25일(목) 오전 10시엔 풀러턴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 기념비 앞에서 LA총영사관이 향군 단체들과 함께 제 76주년 6·25 기념식을 연다. 하루 뒤인 26일(금) 오전 11시엔 한국과 미국의 6·25 참전 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는 바비큐 파티가 남서부지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6월 29일(월) 정오엔 엘도라도 골프장에서 한국과 미국 향군 단체들이 주관하는 예비역 자녀 장학금 및 불우 예비역 돕기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열린다. 이승해, 박광정 회장은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310) 989-5806

① 중앙일보 구독 신청 : 703-281-9660

왓츠 앤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식료품값 내리겠다더니... 장바구니 부담 여전

트럼프 취임 후 계란값만 안정
쇠고기·베이컨·식빵은 상승세
사육비·인건비·물류비 오른 탓

“식료품 가격을 낮추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달리 취임 이후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식료품 가격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NBC뉴스가 시장조사업체 NIQ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과 주요 도시 식료품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계란 가격은 지난해 급등세 이후 안정됐지만, 쇠고기·빵·주스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평균 기준 계란(12개들이) 가격은 이번 주 3.89달러로 트럼프 취임 당시보다 1.73달러 하락했다. 지난해



남加州 지역 한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고 있는 소비자들.

박낙희 기자

3월 기록했던 최고가 6.58달러에 비하면 안정된 수준이다. 조류독감 확산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했던 지난해와 달리 최근 생산량이 회복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다른 품목은 상황이 달랐다. 쇠고기(1파운드) 가격은 전국 평

균 6.96달러로 취임 이후 1.12달러 상승하며 조사 품목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 중 하나를 기록했다. 오렌지주스(32온스) 가격 역시 4.52달러로 0.76달러 상승했고 식빵(1봉지) 가격도 3.15달러로 0.14달러 올랐다.

LA 지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

가 부담은 전국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계란 가격은 이번 주 4.82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약 24% 높았다. 지난해 3월 한때 9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하락했지만 여전히 비싼 수준이다.

쇠고기 가격은 8.10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1.14달러 높았고 식빵 가격 역시 3.78달러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오렌지주스 가격은 3.66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취임 이후 상승폭은 이어졌다. 샌디에이고 역시 LA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계란 가격은 5.08달러, 베이컨(1파운드)은 8.67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닭가슴살(1파운드) 가격도 5.85달러를 기록하며 조사 도시 가운데 높은 수준에 속했다.

뉴욕은 오렌지주스 가격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현재 가격은 5.29달러로 취임 이후 1.27달러 상승했다. 이

는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다. 쇠고기 가격 역시 7.41달러를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조사 도시 중 전체적으로 가장 비싼 지역으로 나타났다. 계란 가격은 6.43달러 쇠고기는 9.17달러 베이컨은 10.40달러까지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닭가슴살 가격도 6.67달러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계란처럼 공급 회복이 이뤄진 품목은 가격이 안정됐지만 쇠고기와 가공육은 사육 비용 상승과 공급 부족 영향으로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대도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주 지역은 높은 인건비와 운송비, 개솔린 가격 부담이 식료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격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영채 기자

불황에도 공유 오피스 인기

재택 늘고 사무실 축소 영향

전국 오피스 시장이 여전히 높은 공실률과 부진한 임대 수요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 공유 오피스 업체는 오히려 공격적인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 오피스 플랫폼 코워킹스페이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LA 메트로 지역에는 올해 1분기 동안 공유 오피스 지점 13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전체 공유 오피스 공급 면적은 전 분기 대비 3.8% 증가했다.

이로써 LA 지역 공유 오피스 시장은 총 351개 지점, 약 800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거주 내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공유 오피스 지점을 보유한 시장 규모다.

공유 오피스는 현재 LA 전체 오피스 재고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

인 오피스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건물주들과 운영업체들이 유연한 업무 공간 수요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과 기업들의 사무실 축소 움직임, 장기 임대 계약을 꺼리는 분위기가 공유 오피스 시장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LA의 일반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반된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 커터데이터의 자료에 따르면 LA 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말과 동일한 15.9%를 기록한 바 있다.

공유 오피스는 면적도 넓은 편이다. LA 지역 공유 오피스 한 곳당 평균 면적은 2만2055스퀘어피트로 전국 평균인 약 1만8000스퀘어피트를 웃돌았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의 평균 2만5530스퀘어피트와 오렌지카운티의 약 2만

4000스퀘어피트보다는 작았다.

공유 오피스 이용 가격은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지역 공유 오피스 월 이용료 평균은 약 235달러로 전국 평균인 220달러보다 다소 높았다. 일일 이용권 가격은 평균 약 40달러다.

시장 점유율은 소수 대형 업체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이었다. 리거스(Regus)가 LA 지역에서 38개 지점으로 가장 많은 지점을 운영 중이며, 프리미엄 워크스페이스(30개), 바리스터 이그제큐티브 스위트(21개), 인더스트리 어스(17개), 스페이스스(16개)가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업체가 LA 전체 공유 오피스 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도 공유 오피스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현식 기자

혼다 오디세이 44만대 리콜

2·3열 에어백 오작동
결함 관련 부상 25건



혼다가 커튼형 에어백 결함 문제로 미니밴 약 44만대를 리콜한다. 최근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혼다는 2018~2022년형 오디세이(Odyssey-사진) 미니밴 44만83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2열과 3열에 커튼형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이다. 차량이 과속방지턱이나 언덕 등을 강하게 넘을 경우 이를 실제 충돌로 잘못 인식하면서 에어백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다는 지난 2017년 해당 문제를 처음 인지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21년에는 차량 소프트웨어가 외부 충격을 실제 사고로 오인해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현상을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안전상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NHTSA 결함조사국(ODI)이 지난해 10월 별도 조사에 착수했고 혼다도 이달 초 자체 조사를 재개한 끝에 리콜을 결정했다.

이번 결함과 관련해 현재까지 25건의 부상 사례가 보고됐다. 혼다는 오는 25일부터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는 딜러 매장에서 에어백 전자제어 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업데이트받을 수 있다.

송영채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Always With You!
703-507-249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알림 대한민국 6월 3일 지방선거에
100% 투표 참여합시다!

- 고국에 계시는 부모, 형제, 자매, 친지, 학교 동문회, 지역 향우회, 군 향군 친구, 시민단체 등 전화로 투표 참여 독려하세요.
-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중 35%가 전과자이며, 심지어 전과 12범 출신의 후보자도 있습니다.
- 지방선거는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대표들을 뽑는 선거이니,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살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함께 하는 단체:
마산 3.15 부정선거 위원,
워싱턴 동포 정화 위원회

6월 3일 지방선거

워싱턴 노인연합회 회장 우태 창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30년 이상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시진핑·푸틴 “북한과 두만강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 논의”

트럼프 보란듯 중·러 정상회담
시진핑 “일방주의·패권주의 반대”
푸틴 “양국관계 최고 수준 이르러”
47쪽 전면적 전략협동 공동성명
타임지 “시진핑 이르르면 내주 방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만나 미국을 겨냥한 ‘반서방 연대’를 강조했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러는 평등한 대우, 상호 존중, 신의와 약속 준수,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러 선린우호협력 조약’을 강조하며 “현재 세계는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러 조약의 가치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러는 모든 ‘일방적 괴롭힘’과 역사 퇴행 행위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

계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 협력은 현대 국가 관계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미국을 예외로 비판했다. 시 주석은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총알의 이익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47페이지 분

량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날 러시아가 먼저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중국의 (대만) 통일 달성을 위한 모든 조치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핵 비핵화는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양국은 외교고립, 경제 제재, 강압적 압박,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타 수단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성명엔 없었던 북한을 두둔하

는 내용이다. 공동성명은 또 “북한과 함께 3자 형식으로 두만강을 통한 해상 접근에 합의를 도출할 것”을 명기했다. 2024년 성명의 “건설적 대화를 진행할 것”에서 진전된 내용이다. 중국의 동해 출해권이 북중러 밀착 구도 속에서 실질적 협력 카드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회담 주요 의제로 중·러의 에너지 협력 사업인 ‘시베리아의 힘 2’가 다뤄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시 주석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동 정세가 전쟁에서 평화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양국 에너지 협력을 강조했다.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프로젝트 관련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베리아의 힘 2는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날 중국은 푸틴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한 단계 높은 ‘플러스 원’ 의전을 베풀었다. 오전 11시 인민대회당 동문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는 트럼프 방문 때보다 상무위원과 정치위원급에서 각각 한 명씩 더 나와 의전의 격을 높였다. 전날 공항 영접은 왕이 외교부장이 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상무위원인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내린 러시아로 공식 초청했다.

한편 이날 미국 타임지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르면 다음 주 시 주석이 북한을 국빈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19년 6월 평양을 국빈방문했으며, 지난달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을 전격 방문하면서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됐다. **신경진 특파원**

순식간에 131명 숨졌다… “확산 속도 매우 우려” WHO도 놀란 ‘변종’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유행의 확산 속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다.

19일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콩고 보건부는 현재까지 에볼라 의심 환자가 513명, 사망자가 1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

CDC)가 발표한 의심 환자 246명, 사망자 65명과 비교하면 나흘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새뮤얼 로저 캄바 민주콩고 보건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심 사례와 사망자가 모두 실제 에볼라 감염 때문인지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진 사례는 진단 설비 부족 등으로 33건에 머물고 있다.

발병 지역도 확대되는 추세다. 최초 발병지인 북동부 이투리주를 비롯해



19일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고마에서 의료진이 에볼라 검사를 위해 주인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북키부주 고마와 부템보, 남키부주 등에서도 환자가 보고됐다. 이웃 국가인 우간다에서도 민주콩고 국적 확진자 2명이 확인됐다.

WHO는 지난 17일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실제 감염 규모가 발표 수치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세계감염병분석 MRC센터는 잠복기 환자까지 포함하면 감염 사례가 이미

1000건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에 확산 중인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변종’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접촉 차단과 환자 격리, 증상 완화 치료 외에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우간다는 주민들에게 악수하고 포옹 자제를 권고했고, 르완다는 민주콩고와의 국경을 폐쇄했다.

미국은 민주콩고·우간다·남수단에 대해 최고 수준인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했다.

박중서 기자

“트럼프 세무조사 영구히 차단” 초유의 대통령 셀프 면책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족, 회사의 과거 세금에 대해 미 국세청(IRS)이 영구히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미 법무부 측 발표가 나왔다. 국세청은 아직 관련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초유의 ‘대통령 셀프 면책 조항’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19일 국세청과의 합의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2026년 5월 18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 회사 등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하는 것이 영구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

과세연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납세 소송에서 제기됐거나 제기될 수 있었던 세금 청구 및 추징도 영구 금지된다”고 했다. 다만 “18일 이후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

청에 제기한 약 10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의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받은 ‘정치적 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국세청 직원이 과거 납세 기록을 뉴욕 타임스(NYT) 등에 유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했다. NYT가 당시 납세기록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기준 이전 18개 연도 중 11개 연도에서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또 2017년 대통령이 된 이후 낸 연방소득세 신고액도 750달러(약 112만원)에 그쳤다.

소송 취하로 받은 것은 이번 아니다. 미 국세청, 법무부 등은 약 18억 달러(약 2조7120억원) 규모의 ‘(사법) 무기화 방지 기금(Anti-weaponization fund)’도 조성하기로 했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i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1451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klmick@prospirlawpllc.com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MAY 21ST - MAY 28TH, 2026

MAEIL Soy Milk
매일두유 **LIMIT 2**

ORIGINAL + BLACK SOYBEAN
6.4 FL OZ X 24 EA/PKG

\$12.99



LIMIT 2

K TOWN
Flame Grilled
Skewers

케이타운
직화 꼬치



\$7.99

TERIYAKI CHICKEN THIGH/K-BBQ PORK
10.5 OZ - PKG

WE NOW ACCEPT HEALTH BENEFITS CARDS



nations benefits

OTC Network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조선제일검, 장관, 비대위원장... 이젠 민심 심판대 서다

The JoongAng Plus

6·3선거 후보 탐구

한동훈 부산 북구갑 후보

지난 16일 부산시 북구 만덕동 '만덕지 기마을 축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소속 한동훈(53) 후보가 차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들어왔다. 수행은 단출했다. 운전하는 사람과 수행비서 1명. 한동훈은 곧장 시민들 사이로 들어갔다. "사진 찍어주세요"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다. "잘생겼다 한동훈", "대한민국을 살리자" 흰 종이를 내밀며 사인을 요청했다. 중고등학생들이 다카와 사진을 찍자고 했다. 이유를 묻자 "좋잖아요"라며 웃었다. 현장은 연예인이 온듯한 분위기였다.

다른 장면도 있다. 선대위 발족식은 한동훈의 현재를 압축한다. 지지와 반감, 환호와 배신자 프레임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 지난 17일 한동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지지자들이 모였다. 건물 밖 공기는 달랐다. 한동훈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었다. 그들에게 한동훈은 윤석열을 배신한 사람, 국민의힘을 갈라놓은 사람이었다. 그가 싸워야 할 상대는 민주당 후보만이 아니었다. 분열된 보수와 '배신자'라는 낙인은 그가 넘어야 할 더 큰 벽이었다.

한동훈은 선대위 발족식에서 '왜 한동훈인지' 세 줄로 설명했다. "민주당을 견제하려면 보수가 다시 서야 한다. 보수를 재건하려면 계엄의 그림자와 '윤어게인'의 뒷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 출발점을 부산 북갑 승리로 만들겠다."

지난 18일 밤 전화 인터뷰가 진행됐다.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지지하다 탄핵과 함께 돌아선 '윤어게인' 세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었다. "'윤어게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수가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나. 없다. 미래로 가야 한다." 답은 간결했다. 자신을 배신자라 부르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승패의 언어로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배신자 프레임'을 뛰어넘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보수를 갈라놓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가 다시 싸울 자격을 되찾게 하려 한 사람이다." 그에게 배신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다.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뿐이다." (한동훈,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정주에서 살았다. 5학년 때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옮겨 신동초등학교와 경원중학교를 다녔다. 1980년대 후반 잠원동은 신혼 강남이었다. 한신아파트 단지에는 법조인·의사·은행원·기업인 등 자수성가형 엘리트가 많았다. 경원중·서울법대 동기인 이준희 변호사는 중학생 한동훈을 "인싸 중의 인싸"로 기억했다. 키가 컸고 잘생겼고 공부도 잘했다. 한동훈의 키는 지금 178cm. 이미 중학교 때 그 키였다. 한동훈의 집안은 여유가 있었다. 아버지는 외국계 반도체 회사 한국지사장을 지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 아버지는 일본 출장길에 CD를 사 오곤 했다. "비틀스 CD를 가져와 학교에서 함께 들었던 게 기억난다. 음악·문화, 그런 걸 참 좋아하는 친구였다." (이준희 변호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고 1학년 때 일진과 주먹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건축가 김호민(EBS '건축탐구-집' 진행)은 "반 주먹인 친구가 약한 애를 괴롭혔다. 보통 모범생들은 그런 일을 피한다. 그런데 한동훈은 붙어 싸웠다. 강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동훈에게 사실인지 물었다. "약한 애를 괴롭히는 걸 못하게 하려고 대신 싸우곤 했다. 맞기도 했다. 싸움하면 내가 이기겠다"

199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한동훈은 또 한 번 눈에 띄었다. 대학 1학년 첫 오리엔테이션. 한동훈이 장발에 금테 안경, 금목걸이를 하고 나타났다. 법대 동기이자 전직 고검장인 H는 "동훈이는 당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러면서도 사회 문제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친구"라고 회상했다.

한동훈은 대학 1학년 시절 서울대 '법대신문'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동훈은 그해 사법고시 수석을 한 10년 선배 원희룡 전 장관을 찾아가 인터뷰했다. 원 전 장관은 "법무 장관 시절 자신을 찾아온 한동훈이 당시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며 언급하더라"고 회고했다.

한동훈은 법대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에서 초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조선제일검의 시작이었다. 한동훈은 SK 사건, 대선자금, 현대차, 론스타 등 굵직한 사건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성장했다. 문제인 정부 출범 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중앙지검 3차장이 됐고,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됐다. 검사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검사는 정답을 찾는 사람이다. 정치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차이가 있지만 좋은 정치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는 점에서 공직에 있을 때 생각했던 기준이나 원칙을 바꿀 생각은 없다."

2022년 5월 한동훈은 49세 나이로 법무부 장관이 됐다. 당시 법무부 고위 간부 K는 한동훈이 난제를 돌파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형 제사카법(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소년법 13세 같은 법안을 정부 안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 비판 받을 일은 정부가 나서서 잘 안하려고 한다. 한 장관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과감하게 돌파하는 쪽을 택했다."

인사나 청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인사 관련 밖에서 들어오는 전 달을 장관 시절에 한 번도 들어준 적 없다. '누구 지금 어딨어'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없다. 사(私)가 없으니 업무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다." 장관 재임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선물 신고 내역 중 한동훈이 신고한 것만 40%였다.

한동훈은 2023년 12월 22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다. 이듬해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정치권에 처음 입문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80% 이상되는 보수의 위기였다. 내가 리커버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렇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정치적 멘토가 있는지 물었다. "정치인으로서 멘토라기보다 존경하는 장면들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과 한·미 상호보호조약을 체결한 장면이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공과가 있기 때문에 이승만 인생 전체를 따지긴 어렵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추진한 장면을 멘토로 삼을 만하다고 했다.

6·3보궐선거까지 2주. 한동훈은 처음으로 유권자에게 직접 심판을 받는 선거판에 올랐다. 정답을 찾던 검사는 마음을 얻는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보수 분열을 넘어 재건의 선봉이 되겠다는 그의 말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 한동훈은 부산 북갑에서 자신의 인생을 건 시험대 앞에 서 있다.



1 서울대 법대 1학년 시절 한동훈 후보. 2 2023년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보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식. 3 한 후보의 부장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 2월 17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4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후보가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성룡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사진 한동훈 후보 캠프]

박성훈 기자

<p>1. 찬들리 하이 싱글 \$1,379,000</p> <p>방5, 화4.5, 차고2, 콘택, 포플라트리 초등, 최고 학교, 장관리, 그린 새 지복(2018) 및 HAC (2019), 100% 콘크리트, 스킵(신기세계 기교, 및 및 및 및 및 (026) 인바, 인바, 천장 팬, 우량 원동기 교체, 수동 커튼 블라인드 (명장고, 전자레인지, 쿡탑, 더블 오븐 / 2018 - 2026) 바닥재 업그레이드 (침실 및 지하 카펫, 지하 침실 LVT 바닥)</p>	<p>6.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p> <p>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차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p>
<p>2. 현존 콘도 \$579,000</p> <p>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p>	<p>7. 알디 싱글 SOLD \$869,000</p> <p>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체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p>
<p>3. 센터빌 스톤게이트 콘도 \$390,000</p> <p>방2, 화2, 클린 파워 초, 센터빌 고, 교통 중심</p>	<p>8. 알링턴 아미네이비 콘도 \$345,000</p> <p>방1, 화1, 2000년, 700 sqft, DC 근교 교통요지</p>
<p>4.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p> <p>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p>	<p>5.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p> <p>1. Haymarket 55+ Villa 방3, 화3.5 차고 2 \$670,000 2. 매나사스 2025 새집 방4, 화3.5, 2400sqft, 차고2 \$670,000 3. Bristow 55+ single 방4, 화3.5 차고 2 \$750,000</p>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이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品格) 품격 있는

가정의 달 선물, 우메켄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 품격 있는 가정의 달 선물, 우메켄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5월 31일까지

저도 우메켄을
받고 싶어요



모두가 행복한 가정의 달 5월 이벤트

가정의 달 행사 1:
동일 가격 제품
2개 구입 시

20% 할인

가족을 위한 선택, 5월의 혜택!

가정의 달 행사 2: 할인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베타글루칸 세트



\$539 > \$485

리포포 세트



\$439 > \$395

효소환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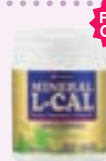


\$439 > \$395

L&B 3종 세트



\$399 > \$359



발효미네랄 L-칼슘 (\$69)

OR



100억 마리 유산균 (\$39)

OR



다마스크 로즈 핸드크림 2개 (\$30)



888-941-3311 umeken.com

OTC 메디케어 카드로 우메켄 제품을 구매하세요!

클레버케어 • 아스티바 •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 에트나 • 센트럴 헬스 플랜 • 휴마나 • LA 케어 헬스 • 몰리나

“거대 양당 카르텔 깨야” “시·도 단위 지역정당 허용을”

한국 정치제도 진단과 개혁 토론회

극단적 진영 갈등과 정치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체제와 중앙 집중형 정치를 밑바닥부터 고쳐야 한다는 학계의 긴급 처방이 나왔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한국정치학회, 중앙일보는 2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정치제도 진단과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의회, 정당, 선거제도 등 3개의 핵심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성재호 미래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건 역설적으로 국민이 깊이 있는 제도 개혁을 바란다는 증표”라며 “한국 정치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의 불꽃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특별 세션인 ‘지방의회와 지방분권’ 발제자로 나선 윤왕희(지방의회학회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1만 명 가량이 입후보해 4000명이 넘는 당선자가 나오는 지방선거는 아래로부터 정치를 재구성하는 본래 의미의 선거”라며 “단체장 우위의 체제를 깨기 위해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 되지 않도록 시·도 단위의 ‘지역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토론회는 의회 제도 논의로 이어졌다. 김진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속기록도 남지 않는 ‘소소위’ 예산 심사가 투명성을 훼손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재정 방향을 합의하는 ‘사전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은수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대 국회 4년간 321건에 불과하던 의원 발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2만 건 넘게 급증한 걸 거론하며 국회 법안 심사의 한계를 지적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한국정치학회, 중앙일보는 2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정치제도 진단과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우창 고려대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강원택 서울대 교수, 신정섭 숭실대 교수, 최민우 중앙일보 부국장. 김중호 기자

했다. 한 연구원은 그러면서 “외부 역량을 활용하는 ‘디지털 시민 입법 플랫폼’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 제도 세션에선 거대 양당 ‘카르텔’과 중앙집권적 공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의사 결정은 여전히 중앙 집중적”이라며 “반복되는 전략 공천과 외부 인재 영입이 오히려 묵묵히 일해온 지역 당원 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지권이 대화와 타협을 경시한 채 검찰 등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법화에 중독돼 있다”고 했다.

장한일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간의 개혁이 청년·여성 등 겉으로 보이는 인구통계학적 인베에만 치우쳤다”며 “현실 정치에선 타협과 관용을 갖춘 인재가 배제되고, 권력 지향적 성향이나 도덕성이 낮은 인물이 유입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참여 경선 등 단순 개방형 공천 제도가 한계에 직면했던 지적도 나왔

미래정책연·정치학회·본지 개최 “국민참여경선, 강성 후보만 양산 지역분권형 공천이 악순환 끊어”

“도덕적 우월감 위해 빌런 만들어 상대 악마화하는 팬덤정치 유발”

“속기록도 안 남는 소소위 예산심사 사전예산제 도입해 투명성 높여야”

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참여 경선이 강성 당원만 과대 대표하게 해 안전 지역구일수록 극단적 후보를 양산한다”며 “중앙당 권한을 축소하고 시·도당에 실질적 공천권을 떼어주는 지역 분권형 공천으로 전환해야 의회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했다.

선거 제도 세션에선 표의 등가성을 높일 다각적인 대안이 모색됐다. 손정욱 가천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면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만으로는 표심이 왜곡되는 비비례성과 거대 양당 우위 구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매년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획정 주기를 선

왼쪽부터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 여성국 기자



신고 들어오는 모든 스토킹, 무조건 정식 수사한다

경찰, 범죄 잇따르자 대응체계 강화 스토킹 신고 1년 만에 40% 증가

경찰이 앞으로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모두 사건으로 접수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2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스토킹 신고에 대해 ‘전건 입건’ ‘직일(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다음 주 중 전국 경찰서와 지역 관서에 공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한두 개 시도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은 112로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

여부 등을 판단해 일부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하거나 상담기관 등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에 피의자 김훈을 신고했음에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사건과 관련된 경찰 2명은 허위 보고를 이유로 수사 의뢰됐고, 1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경찰청의 112 신고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년 새 40%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스토킹 관련 신고는 4만4687건으로, 2024년 3만1947건보다 39.9% 늘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상당수는 정식 수사로 이어

지지 않았다. 지난해 전체 스토킹 신고 중 20.8%인 9320건은 현장 종결됐고, 46%인 2만590건은 기관 인계 후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앞으로 현장에서 바로 종결하기보다 사건 관계인을 조사해 한 차례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선에서는 모든 스토킹 신고를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부담도 크다. 사건 수가 급증할 경우, 개별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공이 분산돼 수사의 밀도가 낮아질 수 있다 우려다. 이아미 기자

“한국에 집 있는데... 세금 관찮으세요?”

양도·상속·증여 제대로 준비하기

대면 세미나

- 5/20 수요일 10 am est
- High Calling Financial office

줌(ZOOM) 세미나

- 6/9 화요일 8 pm est

등록 QR



Karen Ahn 703-688-2645

Speaker



강영진 -주미 대사관 국제관



High Calling Financial

703-688-2645

10505 Judicial Dr. #300 Fairfax, VA 22030

karenahn@highcallingfinancial.com

https://www.highcallingfinancial.com

재정 전문가 캐런 안이 현재 재무 점검 → 세금 절감 → 보험과 은퇴 준비 → 상속 계획까지 인생 전 과정을 돕는 종합 재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전쟁 다큐의
새 역사를 쓰다

인류에 휴머니즘 다큐

6.25 다큐멘터리, 한미동맹 강화
명품 희귀 다큐 **전쟁의 유산 삼영회**
You are invited to a film screening
귀하를 초대합니다

Documentary celebrating
America 250th
**LEGACY OF
THE BATTLEFIELD**
"THANKS FOREVER"

감독 | 김채영
Directed by KIM CHAE-YOUNG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다큐.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힘'이다.
"Peace Through Strength" by US President Trump.

장소 | Regal Fairfax Towne Center
(4110 West Ox Rd., Fairfax, VA 22033)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PM 3:00 / 감독과의 대화
PM 4:00 / 영화 관람 (영어 버전, 한글 자막)
(관람료 \$20)



감독 김채영 약력

- 임권택 감독 영화 '천년학'(서편제2) 제작
- SBS 대하드라마 '토지', '서동요' KBS드라마 '황진이' 제작 참여
- 종근당, 롯데백화점, 한컴204, 우체국우정사업부 CF 제작 외 다수 작품 제작
- 목원대학교 미대 디자인학부 디지털 사진영상학 겸임교수 역임
- 엔터테인먼트 끼 프로덕션 서울 강남 본사 대표 역임
- 현) 컬초인큐티에프(영화제작사) 대표, 전쟁의 유산 제작 감독
- 저서 / 북한비밀정보사업가 김동철박사 고백전 <경계인> 네이버 베스트셀러 작가, 정치 디스토피아 소설 <망각공화국천로역정>, 정치 레제시나리오 <무궁화지고피다> 외 다수
- E-mail / maykim1843@naver.com



주관
미주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 린다 한 외 회원 일동

PRESENT |  

This documentary aims to be the first in the world to reveal the philanthropic spirit and humanitarian of America, hidden in the Korean War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전쟁에 숨겨진 미국의 인류애 박애 정신과 휴머니즘을 세계 최초로 조명한다

이 대통령 “한국인 나포 지나쳐,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이스라엘군, 가자 구호선박 억류
한국인 여성 활동가 등 체포·감금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 구호선단을 이스라엘군이 나포한 데 대해 “자원봉사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의 중동전쟁 관련 재외국민 보호 방안을 보고받은 뒤 “(나포한) 범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인가”라며 “(선박이 향하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에 따르면, 이스라엘 해군은 이날 새벽 KFFP 소속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가 탑승한 선박을 나포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스라엘 해군에 붙잡힌 ‘키리아코스X’호에 탑승했던 한



억류된 한국 활동가들 ■ 이스라엘 군에 나포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소속 김동현, 김아현, 조나단 빅토르 리 활동가의 항해 전 모습. ■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활동가들이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 (사진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국인 활동가 김동현씨는 체포된 상태라고 전했다.

회의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전투 중이니까,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

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위 실장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다. 우리도 (체포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주문

했다.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유럽 일부 국가는 “ICC 법규에 따를 것”(프랑스 외무부 공보담당자),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체포할 것”(이탈리아 국방장관)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대로 미국 백악관은 ICC 결정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12월 체포영

장 발부에 관련한 ICC 판사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명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 발언이 한·미 관계의 또 다른 결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ICC 관련 사항은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실용외교’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가자지구는 하마스 때문에 준(準)전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곳을 향해 오는 정체 모를 배에 대해 이스라엘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스라엘에 나포된 한국인이 풀려나는 과정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한·이스라엘 기업 협력 모두에 이반 발언이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일제히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외교는 철없는 활동가의 감정 분출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초고난도 국제분쟁을 국내 정치선악 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자중자애하라”고 지적했다.

오현석·박태인 기자

한국 배, 호르무즈서 첫 탈출 나무호 피격이 지렛대 됐다

원유 200만 배럴 실려...내달 도착
정부 “이란과 협의, 통행료 안내”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였던 국적선 26척 가운데 한 척이 처음으로 해협을 빠져나왔다. 정부는 이란 측과 꾸준히 협상을 벌인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4일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이 이란의 소행으로 좁혀지면서 관련 협상에 동력이 붙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유조선이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며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19일)부터 항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하루치 원유 소비량 정도인) 200만 배럴을 실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이란이 제시한 통행료를 거쳐 호르무즈해협을 무사히 벗어났다. 이란 정부는 지난 18일 밤 주이란 한국대

사관을 통해 통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해당 선박은 나무호와 같은 선사 HMM 소유의 16만t급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목적지는 울산항이며, 예상 도착 일시는 다음 달 8일이다.

정부는 통행 허가를 받으면서 이란 측에 통행료 등 비용은 일절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나무호 피격 사태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란 소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특정 국가 거명에 신중하던 정부는 지난 14일 “이란 이외의 다른 주제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며 보다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했다.

한편 조현 장관은 외통위에서 “(나무호 공격 무기가) 드론일 가능성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나무호를 공격한 ‘미상 비행체’ 잔해는 15일 한국에 도착했고,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조사하고 있다.

윤지환·심석용 기자

“쳐다보지 마, 확 쫓아 버리기 전에”

도시의 검은 폭군 ‘큰부리까마귀’ 주의보



정부가 여름을 맞아 ‘도시의 검은 폭군’이라 불리는 큰부리까마귀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이 시기 새끼를 보호하는 습성 때문에 인근의 행인이 공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까마귀는 자신을 위협한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5~6월 소셜미디어(SNS)에는 주택가 등에서 새가 날아와 행인의 머리를 치고 가는 영상이 연달아 올랐다. 놀라 머리를 감싸 쥐고 피하면 등 뒤로 날아와 목덜미를 다시 공격하는 장면도 담겼다. 공격당한 행인들은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 같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이 새는 큰부리까마귀다. 검은 광택이 나는 50~60cm의 몸집에 두툼하고 큰 부리가 특징이다. 한국에 사는 까마

귀 중 몸집이 가장 큰 종으로, 도심에서 자주 마주친다.

매년 이런 공격 사례가 반복되자,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안전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5~7월엔 큰부리까마귀와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우산이나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게 좋다. 특히 기후부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큰부리까마귀와 직접 눈을 맞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람의 시선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김경석 기후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까마귀를 유인할 수 있는 음식물을 노출하지 말고 경고 표지가 있는 위험 구간은 신속하게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기 큰부리까마귀가 공격성을 띠는 건 새끼 때문이다. 매년 5월은 새끼가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다. 아직 비행이 서툰 새끼는 동지나 사람이 지나

다니는 지면 가까이 머문다. 부모 새는 동지나 새끼 주변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위협으로 여기고 강한 방어 행동을 한다. 전문가들은 까마귀가 위협한다고 해서 물건을 던지거나 막대기를 휘두르는 식으로 맞대응하지 말라고 했다. 까마귀가 자신을 위협한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나중에 보복할 수도 있어서다.

2010년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까마귀가 사람의 얼굴을 기억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정 가면을 쓴 사람이 까마귀 7마리를 포획해 표지를 남기고 풀어줬는데, 5년 후 이들 7마리 뿐 아니라 더 많은 까마귀가 이 가면을 쓴 사람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 연구팀은 까마귀가 위험 대상 정보를 동료들과 공유한다고 결론 내렸다.

허정원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랄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넬룰라 상담원영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 격정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 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33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민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IR PREMIA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Wonderful TOUR
2026 Yearly Schedule

05/26~06/05	시그니처 서유럽	10박 11일	\$4090+항공
06/05~06/18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06/08~06/18	북유럽 4개국 마감	10박 11일	\$4990+항공
06/09~06/17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 9일	\$4590+항공
06/09~06/19	시그니처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990+항공
06/10~06/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6/16~06/29	시그니처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990+항공
06/21~06/30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	9박 10일	\$2990+항공
06/24~07/05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07/01~07/06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마감양박	5박 6일	\$2290(항공포함)
07/03~07/06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7/07~07/17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7/14~07/2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6890+항공
08/01~08/10	아이슬란드&스코틀랜드&노르웨이 크루즈	9박 10일	\$3650+항공
08/04~08/17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13박 14일	\$5990+항공
08/07~08/17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990+항공
08/07~08/12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8/13~08/20	프리미엄 알래스카 일주	7박 8일	\$2490+항공
08/21~08/28	알래스카 크루즈 1차 마감	7박 8일	\$2190(항공포함/인사이드)
08/28~09/04	알래스카 크루즈 2차 마감양박	7박 8일	\$2190(항공포함/인사이드)
09/04~09/07	노동철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9/10~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9/15~09/25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09/23~10/03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3190+항공
09/28~10/11	독일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09/29~10/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9/29~10/06	정통 동유럽	7박 8일	\$2990+항공
10/05~10/12	발칸 크로아티아	7박 8일	\$2990+항공
10/06~10/16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590+항공
10/08~10/17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마감	9박 10일	\$1380(인사이드), \$1680(오션뷰)
10/08~10/18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3~10/23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마감	10박 11일	\$2990+항공
10/13~10/23	시그니처 서유럽	10박 11일	\$4090+항공
10/15~10/28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20~10/29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역)	8박 9일	\$2290+항공
10/20~10/30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4~11/05	호주 피지 뉴질랜드	12박 13일	\$3799+항공
10/27~11/06	산티아고 순례길	10박 11일	\$3590+항공
10/28~11/09	지중해 크루즈 마감양박	12박 13일	\$3490+항공(인사이드), \$3990+항공(오션뷰)
11/03~11/14	이집트&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11/03~11/15	이집트&요르단	12박 13일	\$3299+항공
11/18~11/29	파타고니아	11박 12일	\$9599+항공
11/25~11/29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2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7박 8일	\$2490+항공
02/23~03/10/27	아프리카&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йд된 항공 여행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Imagine your Korea

고국일주

제주 롯데 리조트와 남해안 오션뷰의 최고급 5성 호텔 숙박, 엄선된 각 지방의 전통요리와 특선요리
주요 대도시와 유명 관광지를 모두 섭렵하는 '고품격 럭셔리 고국일주'

다녀오신분이 다시 원하는 탑여행사의 '고품격 럭셔리 고국일주'는 타사와 비교를 거부합니다.

노 옵션, 모두 포함
10박 11일(제주포함) \$2990+항공
8박 9일(내륙관광) \$2490+항공

2차 6월 21일~6월 30일 (영어) **여행지** 인천/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강릉/속초/김포/제주

3차 9월 15일~9월 25일 **특전**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4차 10월 13일~10월 23일 **마감**

노르웨이 단풍 일본 크루즈
10/7(요코하마 출발)~10/18(인선 귀환) 11박 12일
\$2609(인사이드) \$3069(오션뷰) \$4289(발코니)
모국 10월 20일 상품으로 한국과 일본의 단풍을 만끽하세요.

5차 10월 20일~10월 30일

TOGETHER in KOREA

한국어 투어 (2인 이상 출발) 서울 출발-전주-순천-여수-진주-통영-거제
부산-제주-부산-경주(유네스코)-포항-속초

한국의 매력을 한번에! 한국의 전통, 자연 역사를 담은 감동의 일주 코스.

서남권 3박 4일 \$849 **일출발** **제주** 2박 3일 \$549(부영호텔) **수출발**
서남권+제주 5박 6일 \$1349 **일출발** **전국** 9박 10일 \$2299 **일출발**
동해안 4박 5일 \$1099 **금출발** **내륙** 6박 7일 \$1599 **일출발**
제주+동해안 6박 7일 \$1599 **수출발**

영어 투어 (1인 이상 출발) 서울-공주-전주-광주-보성(녹차밭)-순천-부산
경주(유네스코)-대구-안동(하회마을)-평창-양양

한국의 뿌리와 풍경을 따라 멋과 맛, 세대가 함께 즐기는 전통, 역사, 자연 여행.

내륙 6박 7일 \$1970 **토출발** **동해안** 3박 4일 \$1200 **화출발**
서해안 3박 4일 \$1200 **토출발** **전국** 15박 16일 \$4500 **매일출발**

TMCI 고국 건강검진

한국 프리미엄 병원 집합 맞춤형 의료 서비스

경희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61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 \$990/여 \$111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세브란스** (강남) 남 \$600/여 \$650

현대아산병원
한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메모리얼데이 특선

5/23 **레지워스&나이아가라**
와트킨스글렌
2박 3일, \$750

5/24 **뉴욕&롱우드가든**
1박 2일, \$450
도시와 자연을 함께 즐기는 알찬 일정
뉴욕 핵심 관광과 아름다운 정원 투어

5/22 **스모키마운틴**
3박 4일, \$1090
미 남부 최고의 자연 절경
스모키마운틴 국립공원 완전 정복 투어

2026 성급 여호수아
+아미시마켓 당일

단체 문의 환영
6/4(화경), 6/25
7/16, 8/6
8/27, 9/17 \$199

인생 바퀴리스트 크루즈

지중해 크루즈 **마감양박**
12박 13일 | 10/28~11/9
\$3490(+항공, 인사이드), \$3990(+항공, 오션뷰)

NCL 하와이 크루즈
8박 9일 | 4/24~5/2/27
\$3490(+항공, 오션뷰)

동부투어 6월 10일~7월 25일 까지 월드컵 특수기간으로
미리미리 예약하셔야 관광이 가능합니다.

미동부&캐나다 5박 6일 \$1350
출발 확정: 5/25, 6/8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래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출발 확정: 5/25, 6/22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리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서부투어

서부 완전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4대 캐넌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탑이 드리는 선물

1 대한항공 항공권 5% 할인 판매
2 USIM / eSIM 무료 증정! (30 Days)

한국여행-항공권-고국 건강검진 구매시
데이터 1GB+무제한 통화 USIM 또는 데이터 10GB eSIM
유럽 패키지(원더풀 투어) 구매시
데이터 10GB eSIM 또는 무제한 통화 USIM
※ Cell phone 이 unlock 되신분에 한합니다.

뉴욕&천심 & 나이아가라 3박 4일 \$899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 1박 2일 \$399
원하는 유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 시내 \$100
매일 수시 출발
확정일: 5/28, 5/3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당일관광 / 소수인원 출발가능

서부 4대 캐넌 5박 6일 \$990+항공 **엘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5대 캐넌, 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코스타리카 연방 4박 5일 \$1190+항공
출발 확정: 6/8, 6/22

마운틴 러쉬모어 크레이지호스 3박 4일 \$1040+항공
출발 확정: 5/22, 7/3, 9/4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정원오, 서울 전역서 오세훈 앞서... 강남권도 정 40% 오 38%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서울시장

정원오 4050, 오세훈 20대서 크게 앞서
중도층 지지율 정원오 48% 오세훈 28%
“국정 안정” 49% “정부 견제 필요” 39%
관심 공약 “부동산” 32% “민생경제” 19%

6·3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서울시장 지지 후보 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 45%,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34%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3.5%포인트) 바깥이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9%, 모름·무응답은 8%였다. 그 밖에 김경철 개혁신당 후보 지지자가 2%, 유지혜 여성외당 후보 지지자가 1%로 나타났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51%가 정원오 후보, 34%가 오세훈 후보를 택했다.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



엔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39%였다. 또 응답자의 81%가 현재 지지 후보에 대한 계속 지지 의사를 밝혔고, 18%는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다.

자신을 진보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74%가 정원오 후보를 지지했고, 보수층에서는 70%가 오세훈 후보를 뽑겠다고 응답했다. 또 민주당 지지층의 89%가 정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91%가 오 후보를 각각 지지했다. 중도층에선 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48%로 오 후보(28%)보다 많았다.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보면,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서울 동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구)에서도 정 후보가 40%의 지지율을 기록해 38%에 그친 오 후보에 앞섰다. 서북권(마포·서대문·용산·은평·종로·중구)에서는 정 후보 49%, 오 후보 33%,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에서는 정 후보 48%, 오 후보 33%,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구)에서는 정 후보 43%, 오 후보 34%였다.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정 후보가 우위였다. 정 후보는 40대(정 후

보 58%, 오 후보 26%)·50대(정 후보 63%, 오 후보 26%)에서 큰 격차로 앞섰고, 30대(정 후보 34%, 오 후보 33%)와 60대(정 후보 48%, 오 후보 37%)에서도 오 후보에게 앞섰다. 반면에 20대(정 후보 27%, 오 후보 40%)와 70세 이상(정 후보 41%, 오 후보 45%)은 오 후보 지지 응답이 더 많았다. 성별까지 감안한 연령별 조사에선 20대 남성(정 후보 16%, 오 후보 51%)과 30대 남성(정 후보 33%, 오 후보 34%), 70세 이상 여성(정 후보 32%, 오 후보 48%)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정 후보가 우위였다.

후보 선택 기준 중에선 ‘행정 경험, 자질, 능력’을 중시하겠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다. 공약 및 실현 가능성(22%), 소속 정당(11%), 도덕성(10%), 소통 능력(9%)이 중요하다는 답이 그 뒤를 따랐다. 응답자들의 최대 관심 공약은 ‘부동산 및 주택 정책’(32%)이었다. 이 외에 일자리·민생경제 정책(19%), 정치·행정 개혁(13%), 복지(11%), 균형발전(11%) 등의 공약에 관심을 보였다.

장한익 케이스탯리서치 수석연구원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에게 크게 앞섰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불은 적이 있다”며 “후보 간 격차가 앞으로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영익·박준규 기자

김용남·유의동·조국 3강... 김, 다자·양자 모두 강세

경기 평택을

김·조, 모두 유의동과 맞대결 우위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에 선 5파전 속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3강 구도가 확인됐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7~19일 평택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503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지지 후보를 묻은 결과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29%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

다. 조국 혁신당 후보는 23%로 김 후보를, 유 후보는 17%로 조 후보를 각각 오차범위(±4.4%P) 내 추격하는 양상이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4%,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는 7%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57%가 김 후보를 지지했지만 조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도 31%였다. 반면에 혁신당 지지층의 97%는 조 후보를 지지했다.

김용남-조국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대결에선 ‘김용남 대 유의동’은 47% 대 29%, ‘조국 대 유의

동’은 43% 대 31%였다. 유의동-황교안 단일화를 전제로 한 김용남-조국-유의동 3자 가상 대결에선 김 후보가 30%, 유 후보는 25%, 조 후보는 2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 경우 김 후보와 유 후보의 지지율 차이도 오차범위 내인 5%포인트로 좁혀졌다.

김복식 메타보이스 대표는 “야권이 유의동으로 단일화해 황 후보 표를 흡수하면 여야 양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며 “반 예측이 수치를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김부겸·추경호 초박빙... 부동산, 보수가 진보보다 2배 많아

대구시장

4050은 김, 60대 이상에선 추 앞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많지만
국정안정론 39%, 정부견제론 48%
관망 중인 중도 보수 표심이 관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간을 앞두고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의 지난 17~19일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후보는

41%, 추경호 후보는 38%로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3.5%포인트) 내인 3%포인트였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10%, ‘모름·무응답’은 10%로 부동산 후보는 1%에 그쳤다. 당선 가능성 조사 역시 추 후보(42%)와 김 후보(41%)

가 불과 1%포인트 격차로 초박빙 양상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김 후보가 73%로 추 후보(18%)를 압도한 반면, 보수층에선 추 후보가 59%로 김 후보(21%)를 앞질렀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산층은 진보층

(9%)보다 보수층(18%)에서 더 컸다. 중도층에선 김 후보가 52%로 추 후보(26%)의 두 배 수준이었지만, 부동산층 역시 21%로 높게 나타났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추 후보로 결집한 강성 보수층과 달리 국민의힘에 실망한 중도 성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 레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 메이틀랜드 치료
- 신경발달 치료
- 보박스 치료
- 근육 통증침 치료
-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 관절/근막이완 치료

메디케어 / 교통사고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여행자 보험, 캐시플러스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렌지 지역]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버마케터 / 메디케어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재수·박형준 오차범위 내 접전... 전, 신도심 등 11개구 선두

부산시장

박형준, 고령층 많은 원도심서 우세
4050 전재수, 70대 이상은 박형준
당선가능성은 전 47% 박 32% 차이
선택기준 "능력" 31% "도덕성" 14%

영남권 최대 격전지인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의 지난 17-19일 조사에서 전 후보는 42%, 박 후보는 3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포인트로 오차범위(±3.5% 포인트) 수준이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3%였고, '지지 후보 없다' 11%, 모름·무응답 9%였다. 지난해 12월 28-30일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 신년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 39%, 박 후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는 줄어든 셈이다. 다만 5개월 전인 정 후보가 빠진 가상 양자대결 조사였다.

전·박 후보의 지지세는 세대·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 후보는 18-29세부터 50대까지 모두 우세했다. 특히 40대(전재수 58%, 박형준 21%)와 50대(전재수 58%, 박형준 34%)에서 전 후보가 박 후보를 크게 앞섰다. 반면에 70대 이상 고령층에선 박 후보가 51%를 얻어 29%인 전 후보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부산항을 끼고 있는 원도심(동·부산진·서·영도·중구)에서 박 후보가 41%로 전 후보(37%)보다 우위를 보였다. 고령층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 특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 후보는 신도심인 강서구와 3선(북갑)을 지낸 북구 등 나머지 11개구에서 박 후보에 7-13%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두 후보 간 지지율은 접전이었지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

에는 전 후보가 47%, 박 후

보가 32%로 격차가 컸다. 진보층에선 72%가 전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에선 박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52%에 그쳤다.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은 46%대 43%로 팽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63%가 '잘하고 있다', 3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직 시장인 박 후보의 시정에 대해선 48%가 '잘했다', 43%가 '잘못했다'로 평가했다.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 39%,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1%, 진보당 2%, 개혁신당 3%, 그외 다른 정당 2%, 지지 정당 없음 18%, 모름·무응답 1%였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행정 경험·자질·능력(31%) ▶공약 및 실현 가능성(23%)을 최우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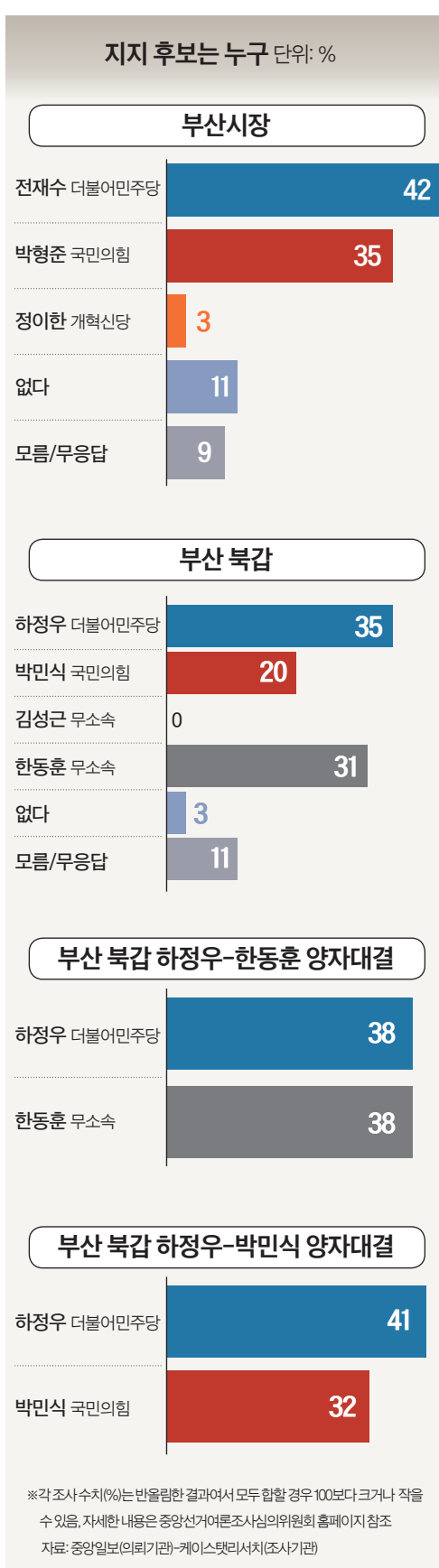
꼽았다. 최근 전 후보의 까르띠에 수수 의혹과 박 후보의 엘시티 시세차익 의혹 등을 두고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

하는 가운데 부산 유권자들은 후보 도덕성(14%)도 주요 선택 기준으로 답했다. 김규태 기자



전재수

박형준



한동훈, 박민식과 단일화 땀 하정우와 38% 동률

부산 북갑

박민식으로 합치면 하 41% 박 32%
국민의힘 지지층선 박 43% 한 51%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에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다자·양자 구도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7-19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하정우 후보 35%,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20%, 한동훈 후보가 31%의 지지를 얻었다. 하·한 후보 간 격차는 4%포인트로 오차범위(±4.4%포인트) 안이었다. 양자 대결에선 박 후보로 단일화 땀 하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41%)가 박 후보(32%)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한 후보로 단일화 땀 하·한 후보가 38%로 같았다.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보면 보수 야권 후보의 분점 양상은 뚜렷했다. 3자 구도에서 민주당 지지층이라 밝힌 응답자 중 89%가 하 후보를 지지해 결집력이 강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박 후보 43%, 한 후보 51%로 갈라졌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 하 후보 지지율은 79%였지만, 보수 성향 중에선 박 후보 38%, 한 후보 44%였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북갑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단일화가 되더라도 박·한 후보 모두 상대 지지

층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며 이탈표가 발생하는 흐름도 확인됐다. 한 후보로 단일화 시 박 후보 지지자 중 한 후보로 옮겨간 비율

은 26%에 그쳤다. '없다'로 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많았고, 그외 인물 12%, 모름 6%였다. 아예 하 후보로 이동한 비율(13%)까지 합하면 74%가 대열을 이탈했다. 박 후보로 단일화할 때 역시 한 후보 지지자 중 28%만 박 후보로 옮겨갔다. '없다' 39%, 그외 10%, 모름 3%였고, 하 후보 지지로 돌아선 비율(20%)까지 합하면 72%가 빠져나갔다.

단일화에 대한 박·한 후보 지지층의 태도도 같았다. 한 후보 지지층에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8%였지만, 박 후보 지지층에선 '필요하지 않다'(50%)가 '필요하다'(48%)보다 많았다.

북갑은 남은 선거 기간 누가 '이탈표'를 흡수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국동민 컨설팅 전략실장은 "강성 보수와 중도 보수 등 파편화된 보수 유권자가 단일화를 막고 있다"며 "박스권에 갇힌 하정우 후보를 이길 가능성을 누가 보여주느냐가 단일화 성사 여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향의 보수층은 아직 관망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대별 분화 현상은 뚜렷했다. 김 후보는 40대에서 62%, 50대에서 52%를 기록해 추 후보(40대 22%, 50대 34%)에게 우위였다. 반면에 추 후보는 60대에서 49%, 70대 이상에서 57%로 김 후보(60대 36%, 70대 이상 26%)에 비해 강세였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지

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해선 긍정 평가가 54%로 부정 평가(37%)보다 많았다. 그러나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48%)은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 안정론(39%)보다 컸고,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44%로 민주당(28%)을 앞

섰다. 장한익 케이스탯리서치 수석연구원은 "양쪽 모두 남은 기간 돌발 변수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 캠프는 중도·통합적인 김 후보의 이미지와 국무총리를 지낸 경륜 등 인물론을 내세우는 한편 최근

탈당한 국민의힘 인사들의 합류를 강조하며 '샤이 김부겸' 끌어내기 전략을 이어간단 계획이다. 추경호 후보 캠프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안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을 요구하는 고공전과 함께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전문가 이미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의 구체성을 부각하는 행보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준호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아수술(눈꺼풀 재형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티시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원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우리말 바꾸기

‘뒤덮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눈으로 뒤덮혀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다”는 낭만적인 생각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눈으로 뒤덮힌 도로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교통 속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게 현실이다.

‘뒤덮다’를 피동 표현으로 나타낼 때 위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한다. ‘뒤덮이다’와 ‘뒤덮히다’는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 어느 것이 바른 표현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뒤덮다’의 피동사는 ‘뒤덮히다’가 아닌 ‘뒤덮이다’이다. 따라서 ‘뒤덮히고, 뒤덮히면, 뒤덮힌, 뒤덮혀, 뒤덮혔다’ 등은 모두 ‘뒤덮이고, 뒤덮이면, 뒤덮인, 뒤덮여, 뒤덮였다’와 같이 고쳐야 바른 표현이 된다.

‘덮다’ 또한 마찬가지다. ‘덮다’의 피동사 역시 ‘덮히다’가 아닌 ‘덮이다’이므로, “베일에 덮여 있던 사건”에서와 같이 ‘덮이다’를 활용한 표현을 써야 바르다.

피동사(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해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사동사(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를 만들 때 접사 ‘이’와 ‘히’ 중 어떤 것을 써야 할지 무척 헷갈린다. 그런데 피동과 사동이 만들어지는 데 일정한 규칙이 없어 각각의 어휘에 따라 어떤 접사가 오는지 찾아보고 익히는 수밖에 없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말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LA 한복판에서 실감한 K뷰티 현주소



송영채
경제부 기자

지난 주말 LA의 멜로즈 거리에서 우연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봤다. 처음에는 유명 브랜드의 팝업이나 인기 있는 카페의 웨이팅처럼 보였지만 다가가 보니 한국 화장품 브랜드 팝업스토어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좁은 건물 옆면을 둘러쌀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특히 눈에 띈 건 대부분이 한인이 아닌 다양한 인종의 젊은이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한국 화장품을 직접 체험하고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더운 날씨에서도 긴 시간 줄을 선 채 기다리고 있었다.

행사장 안 분위기는 일반 화장품 매장과는 달랐다. 방문객들은 각 부스를 돌며 제품을 체험한 뒤 도장을 모았고 이를 모두 채우면 즉석 뽑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현장에는 한국식 즉석 포토부스도 마련돼 있었다. 제품을 테스트한 뒤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SNS(소셜네트워크)에 올리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인플루언서와 배우들도 방문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LA 지역 대표 TV 방송사인 KTLA에서도 해당 팝업과 K뷰티 제품을 직접 소개했다.

이 모습을 보면서 K뷰티가 미국에서 더는 단순한 ‘화장품’ 카테고리라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 경험이자 라이프스타일처럼 소비되고 있었다.

실제 시장 흐름도 이를 보여준다. 최근 금융경제 미디어인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기준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화장품은 ‘가성비 좋은 제품’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소비자들은 이제 브랜드 이름보다 성분과 효능을 더 꼼꼼히 비교한다. K뷰티는 성분 중심 스킨케어와 빠른 트렌드 반영,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앞세워 젊은 층의 소비 패턴과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졌다.

특히 Z세대 소비문화와의 결합이 눈에 띈다.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단순 구매보다 경험과 참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팝업스토어에서 사진을 찍고 이벤트에 참여하며 SNS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소비되고 있다. 이번 행사 역시 제품 진열대보다 체험 공간과 포토존 주변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모습이였다.

이번 팝업이 얼타 뷰티(Ulta Beauty)와 협업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도 상징적이었다. 과거 K뷰티가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나 한인 중심 시장에서 소비됐다면 이제는 미국의 대표 뷰티 유통

망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매년 수만 명이 찾는 KCON LA 역시 이제는 단순한 K팝 행사를 넘어 K푸드·K뷰티·K패션까지 함께 소비하는 대형 문화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건 K뷰티의 변화가 단순히 ‘한국 제품이 인기 많아졌다’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한국 문화가 특정 팬층 중심으로 소비됐다면 이제는 젊은 층의 일상적인 소비 방식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K뷰티가 단순히 ‘한국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Z세대 소비자의 관심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유행에도 민감하다.

K뷰티는 성분과 효능, 가격 외에 경험적 요소 등 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을 충족시키고 자리를 잡고 있다.

결국 지금의 K뷰티 인기는 단순히 한류 열풍의 덕이라기보다는 미국 소비 문화의 변화와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멜로즈 거리에서 본 긴 줄 역시 단순한 유행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한국 문화가 이색적인 ‘외국 문화’의 하나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미국 소비 트렌드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기 때문이다.

열린광장

은방울 꽃처럼 빛나는 5월과 사람들



윤경중
연세목회자회 중경회장

5월은 많은 꽃이 피는 계절이다. 종 모양의 꽃이 피는 ‘은방울 꽃(lily of the valley)’도 그중 하나다. 그래서 아름다운 5월에 은방울 꽃봉오리가 피고 참새들이 노래하면의자연스레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과 일들이 떠오른다.

우선 5월에는 많은 왕과 대통령들이 태어났다. 러시아의 캐서린 여황제가 1729년 5월 2일 태어났고,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1884년 5월 8일 출생이다. 또 스웨덴 왕 구스타부스 출생일은 1496년 5월 12일이고, 오스트리아 여황제 마리아 테레사는 1717년 5월 13일 태어났다.

이밖에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II (1868년 5월 18일), 영국 여왕 빅토리아(1819년 5월 24일),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1917년 5월 29) 등도 5월 출생자다. 반면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1821년 5월 5일 사망했다.

5월에는 기억할만한 일들도 많았다. 미국 최초의 의학전문대학이 1765년 5월 3일 필라델피아에서 문을 열었고, 1840년 5월 6일 영

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우표가 판매됐다. 미국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된 것이 1869년 5월 10일이고, 메모리얼 데이가 시작된 것은 1866년 5월 5일이었다.

세계 2차대전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유럽 기념일(V-E Day)이 1945년 5월 8일 생겼고, 미국에서 항공우편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18년 5월 15일이다.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The Golden Gate Bridge)는 1937년 5월 27일 역사적인 개통을 했다.

5월에는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도 많이 태어났다. ‘군주론(The Prince)’의 저자 니콜로 마키아

벨리가 1469년 5월 3일 이탈리아에서 출생했고, ‘자본론(Das Capital)’으로 유명한 칼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독일에서 태어났다.

또 유명한 음악가인 요하네스 브람스(183년 5월 7일), 유명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퀴리 부인(1859년 5월 15일), 천연두 환자에게 처음으로 주사를 놓아준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詹너(1749년 5월 17일),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경(1872년 5월 18일), 프랑스의 유명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작(1799년 5월 20일), 독일의 유명 음악가 리처드 바그너(1813년 5월 22일) 등도 아름다운 계절 5월 출생자다.

미국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인 ‘공화국 전투 찬가(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의 작사가인 줄리아 워드 호위가 태어난 것도 1819년 5월 27일이었다. 이밖에 미국의 북극 탐험가 로버트 피리는 1856년 5월 6일 북극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일은 나중에 북극 항공로를 개척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했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앞 빌딩 3층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자강과 연대로 한·미 동맹 유지하며 대중 관계 개선해야”

두 번째 방중은 완연히 달랐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집권 1기 중국 방문 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다. 한데 이번 2기 방문에선 트럼프가 시진핑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모양새였다. 9년 만에 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 한중비전포럼은 19일 서울 HSBC 빌딩에서 ‘미·중 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에의 함의’를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시진핑 성과는 미국의 대만 정책 후퇴

▶안호영(전 주미대사, 발제) 경남대 석좌교수=트럼프의 5월 방중과 관련, “트럼프는 아침, 시진핑은 단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관계는 향후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기대기보다 거래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강대국 정치의 귀환이다. 이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세 가지다. 첫째는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자강과 연대라는 양대 축 건설에 힘써야 한다. 자강을 위해선 기술력과 경제력, 군사력 등 3대 역량을 길러야 한다. 또 유사한 입장(like-minded)의 국가들과 뜻을 같이하는 연대가 절실하다. 둘째는 여전히 대미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변화에 따라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의 안보와 경제 등 현실을 고려할 때 ‘플랜 B’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셋째는 원칙에 기초한 대중 관계 강화다. 미·중을 오가는 ‘전략적 모호성’은 한계가 있다. 미국에는 실망을 안기고 중국으로부터도 점수를 따지 못한다.



대만 문제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주장한 시진핑의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 만일 트럼프가 대만 무기 수출을 주저한다면 대만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동맹국들의 대미 신뢰는 급속히 약화할 것이다.

▶신정승(전 주중대사, 사회) 동서대 석좌교수=일각에서 ‘알맹이가 없다’는 박한 평가도 내리지만, 미·중이 건설적 전략 안정에 합의해 향후 두 나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세계에 천명한 것은 나름 의미가 크다. 양측 팩트시트를 보면 다른 점이 많아 정말 무엇이 팩트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 초청 친서 보냈나

▶이희욱 성균관대 정외과 명예교수=우리가 주목할 건 한반도 문제다. 미국 측 팩트시트는 시진핑이 ‘북한 비핵화’를 지지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엔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돼 있다.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시진핑의 기존 생각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인이 필요하다. 또 최근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에게 친서를 보내 미국으로 초청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이 역시 사실 파악이 중요하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올해 대만 문제는 계속 시끄러울 전망이다. 대만은 ‘스핀지’ 같은 존재라 중국이 대만을 강하게 누를수록 대만 민진당의 힘은 약해지고 반대로 국민당은 완충 역할로 지지도 상승의 여지가 생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 현실화된다면 대만 여론은 민진당 쪽으로 기울 수 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올해 예정된 네 차례 미·중 정상회담 중 1라운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집무실인 베이징의 중난하이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드는 시진핑이 득점했다. 출국 전 미 대 표단이 중국에서 받은 물품을 전부 버리는 사진은 미국의 불쾌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이 ‘대만 관계법’을 협상 카드로 꺼냈다는 건 꽤 다 내보인 것으로 미국이 ‘갈 데까지 갔다’는 인상을 준다. 시진핑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말자고 했지만, 미·중은 앞으로 진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보며 ‘미국에 과연 대중 정책이 존재하느냐’라는 의문이 들었다. 특히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우려스럽다. 미국이 향후 동맹국에 대한 방위공약조차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위험한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 거래하는 ‘코리아 패싱’의 가능성도 이전보다 커졌다.

미·중 함께 관찰하는 두 눈박이 필요

▶임성남 전 외교부 차관=미·중 정상회담을 중국의 승리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단발적 행사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축적된 미·중 관계의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에 대한 불신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이슈별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인 사회는 미·중 양측을 동시에 정확히 관찰하는 두 눈박이가 되어야 한다. 외교적 행보도 신중히 해야 한다. 속도와 방향을 전환할 때는 항공모함처럼 천천히 해야 한다.

▶윤강현 전 주이란 대사=향후 트럼프 행정부 2년 반 동안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상황 관리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경제안보에서 견제의 핵심은 수출 통제인데 중국이 희토류를 꼭 쥐고 있다. 미사일 성능을 좌우하는 중희토류는 중국이 거의 전적으로 생산한다. 결국 중국의 협조 없이는 이란전쟁에서 소모한 미국의 핵심 전력 재건이 힘들다는 이야기다.

▶조동호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미·중이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의외지만, 이는 물밑에서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 경제와 남북 경협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미·중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다. 올가을이나 겨울

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 내부의 심각한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로 인식될 정도다. 그렇기에 북·미 간 박딜의 가능성도 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 원장=2024년부터 미·중 대화에서 사라졌던 ‘북한 비핵화’ 용어가 다시 등장한 건 이례적이다. 이것이 단순히 북한 비핵화 논의의 재개를 뜻한다고 보기보다는 북핵 문제, 한·미 동맹 등 현안 전체를 거대한 패키지 속에서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플랜 B’를 고민해야 한다.

미국에 ‘린치핀’ 같은 존재 돼야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시진핑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거론한 건 자신감의 표현이다. 패권국과 도전국의 정면 충돌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면서 대만 문제를 카드화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강대국 간 거래에서 힘이 없는 나라는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 자강의 노력을 기울이고 중견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대전제로 하되, 중국과도 더 잘 지내는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가 최선이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미·중은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준의 관계로 진입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성격도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으로 변하고 있다. 또 모든 걸 거래로 보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 역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변화의 구도 속에서 우리는 미국의 ‘방산 기술 파트너’가 되는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대체 불가능한 ‘린치핀’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미·중 정상회담을 보면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어찌 된 것은 아니다. ‘플랜 B’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래도 주축은 한·미 동맹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속고가 필요하다. 연대를 어떻게 할지는 학계와 기업 등 우리 모두 깊이 공부해야 한다. 결국 왕도는 자강이다.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실용적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또 거래 담론도 중요하지만 미·중을 동시에 보면서 미시적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에게 냉정한 균형감과 실리적 외교가 필요하다. **정리=사공관속 차이나랩 기자**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임성남 전 외교부 차관, 김진표 전 국회의장,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이희욱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왕휘 아주대 교수, 신정승 전 주중대사, 안호영 전 주미대사, 김진호 단국대 교수,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조동호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박원근 이화여대 교수, 박준 IMM 이사, 김종호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 동 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골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시 설

삼전 성과급 협상 극심한 진통... 노조 요구 적절성 지켜야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어제 하루 종일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사후조정이 결렬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중재에 나섰다. 성과급 재원과 특별보상 기간 등에선 일부 절충이 있었지만, 적자를 내는 사업 부까지 역대 성과급을 배분하라는 삼성전자 초기노조의 요구가 걸림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조 단체행동도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라 경제 전체를 볼모로 삼는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압박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셈이다. 하루 전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발언보다 수위를 훨씬 더 높여 노조를 비판한 발언이었다. 현 정부의 친노동 기조와 상관없이,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성과급을 요구조건으로 삼는 파업 명분의 적절성 등에서 파업 강행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판단을 했을 것이다.

파업 강행 여부와 상관없이 삼성전자의 대외 신뢰가 손상을 입는 등 피해가 현실화했다. 삼성 내부에서는 벌써 “엔비디아가 파업 기간 생산된 제품은 받지 않겠

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공급 안정성에 의문이 생기면 고객사들은 곧바로 대만 등 경쟁사로 거래처를 돌릴 수밖에 없다. 피해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사내 갈등까지 키우고 있다. 반도체(DS) 부문 주도의 성과급 협상에 반발하는 TV·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조합원들은 교섭중단 가져분까지 신청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조들도 성과 배분 요구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노조가 불을 붙이면서 현대차·HD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에서도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올린 성과급 파업이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 고용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사태가 해결된다 해도 사회 경제적 파장은 막대하다.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한 종업원에 대한 보상은 어느 선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그로 인해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공동체 이익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는지 등등 많은 질문을 던졌다.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 노사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코스피가 서울시장을 결정한다고?

정호식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오랜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6·3 지방선거 서울·부산·대구시장 판세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최근 들쭉날쭉한 여론조사를 두고 오차범위 내로 근접한 일부 조사를 근거로 막판 판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과 여당의 싸늘이 전망에 변화가 없다는 이가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결론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고유가발 미국 금리 인상 이슈에 부쩍 변동성이 커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얘기로 이어졌다. 아니, 선거날까지 코스피 7000 유지 여부가 서울시장을 결정한다고? 바야흐로 코스피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다음 날 삼성전자 초기노조가 협상 결렬, 2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면서 7000선이 잠시 위태됐지만 결국 삼성 전자 주가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파업 돌입 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 강제중단시키겠다고 예고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 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 코스피 방어선이 굳게 형성된 모양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국민 전체가 코스피 이해당사자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주만 461만 명, SK하이닉스도 118만 명이었다. 이후 코스피가 장중 8000을 넘는 이달 5월 중순까지 국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9829만 개에서 1억606만 개로 약 800만 개가 늘었다. 두 기업 소액주주들이 급증한 상황에서 주가 폭락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미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7000 넘게 오른 코스피가 5000대로 내려앉는 건 다른 문제다. 코스피 시가총액, 즉 국민 주식 자산이 20~30% 증발한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발목이 크게 잡힌 셈이다.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은 그간 노조 편을 들어 온 진보 정권에선 이례적인 상황이다. 발동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5년 항공운송을 과점한

아시아나, 대한항공 노조 파업 이후 21년 만이다. 성과급 등 이익 배분 문제는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확대할 수 없게 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강행 처리해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파업의 여건을 만든 것이 정부·여당이 작년 9월에 한 일이었다. 앞에서 성과급 도미노 파업의 환경을 제공해 놓고 뒤에선 긴급조정권이란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해 파업을 막는 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형국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초과 이윤(초과 세수)을 어디에 쓸지를 두고 “체제 유지 비용” 운운하며 ‘국민배당금’을 제안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용인·수원·화성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중1 전원에 100만원 규모 펀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마찬가지다. 선거를 앞두고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국제 상황이나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나눠 갖자는 인식에

외교 파문 우려되는 이스라엘 관련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0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을 이스라엘군이 나포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24년 11월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인 활동가 2명은 각각 지난 18일과 20일 구호선을 타고 가자지구로 이동 중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체포됐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우리 국민이 체포된 데 대해서는 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고려할 때 관련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반면에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 규범과 국제정치 현실과의 염연한 간극을 고려한 끝에 나와야 한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ICC는 124개 회원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자를 체포하는데, 대부분의 회원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을 고

려해 집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TV로 방송되는 공개석상에서 국가 정상이 다른 국가 정상에 대한 체포 영장을 언급하는 것은,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외교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외교 경로를 통해 체포된 한국인 활동가들의 조속한 석방·추방을 요청했고, 현재 비공식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역에서 포격된 나무호 사건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과도 대비된다. 박선원 여당 정보위 간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란이 대함 미사일로 근접해서(나무호를) 공격했다고 보는 것 같다”고 공개할 정도로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번 포격이 이란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엄중 대응 여론에도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행여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이중 잣대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다.

**코스피 7000이 좌우하는 지방선거
주식투자 급증, 역대 없던 영향력
‘카지노 민주주의’에는 미래 없어**

공분을 샀다. 실제 선거용이 아니라라도 정부가 대내외의 악재 영향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내서는 건 국민 경제는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미 이란전쟁 여파를 줄이기 위해 기름값 최고가격제 보전 비용으로 4조2000억원을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10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자산배분 기준(14.9%)보다 10%포인트 초과해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도 지수를 받치기 위해 수익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선거 때 없었던 증시의 영향력은 87년 체제가 만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다. 투기 세력이 판치는 ‘카지노 자본주의’처럼 정치가 한탕주의에 오염됐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40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양대 정치세력에 자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ejoon.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02-751-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계약제시 마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ENGLISH FINANCIAL TIMES, 일본어판: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 주필: 이희경 | 편집인: 최훈 |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역판권(이)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박영석 만평



parkys@joongang.co.kr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대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5월 스페셜 SALE

Special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세라젬!! 디자인 아 성능도 아 기쁨 더~더욱 아

세라젬 CERAGEM V7

일상 회복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그니처 허벅지 보살핌 기술로 혁명적 제품

3가지 컬러 옵션으로 만족하세요
 화이트 | 블랙 | 핑크 레디스

CERAGEM FDA

CERAGEM V7

우아함과 품위의 만남

스파인 스크: 스페셜 허벅지 보살핌 기술로 허벅지 근육을 효과적으로 마사지합니다.

목-어깨 특화형 마사지: 목과 어깨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분할 케어: 목과 허벅지 부위를 분리하여 더 나은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미국 FDA 인증 2등급 의료기기

당신의 공간을 품격 있게 완성하세요

세라젬과 함께하세요
 @ceragemusa
 Ceragem USA
 www.ceragemusa.com

플무원 김치 냉장고 런칭 기념 세일!

내 공간에 딱 맞는 김치냉장고
바른먹거리를 담은 바른 솔루션

플무원 김치냉장고 120L

PULMUONE KIMCHI FRIDGE 120L

SPECIAL OFFER \$1,399 → **\$999**

건강에 맞게
플무원 인버터 불림시스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6가지 맞춤 보관 모드

STEAMBOY 스팀보이 카본 온수메트

SPECIAL OFFER 싱글 \$340 → **\$300**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월 업그레이드 일월(매트)의 자부심 안전한 잠자리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휴표 흥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흥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흥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턴 지정 대리점

월턴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한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건강을 채우고 피톤치드 흡수!

LOTTEmarket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MAY 21ST - MAY 28TH, 2026



Memorial Day Grilling Season



냉면+갈비 세트



앵거스 LA갈비 한판
 BEEF SHORT RIBS
 LA STYLE WHOLE CUT

\$10.99 **EDLP**
 LB



양념LA갈비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10.99 **\$16.49**
 LB (PACK)



수라상 모란각 냉면
 SURASANG MORANGAK
 COLD NOODLE

\$7.99 **\$12.99**
 LB **\$11.99**

판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상황에 따라 조기 품절 또는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May 21, 2026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칭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은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와인 셀러 대신 웰니스 공간 인기

가주 주택 인테리어 변화
음주 감소·건강 중시 영향
사우나·명상·운동시설 전환



럭셔리 주택의 상징이 와인 관련 인테리어에서 건강과 웰빙 시설로 바뀌고 있다. 가주에서 와인 관련 설비는 오랫동안 럭셔리를 상징했다. 나파밸리와 소노마 등 세계적인 와인 산지와 함께 와인은 가주 문화의 상징이 됐다.

집을 살 때 반려동물 친화적인 요소를 먼저 따지는 바이어들이 늘고 있다.

고가의 빈티지 와인 수집이 인기를 끌면서 가정에서도 와인 보관 공간이 중요한 인테리어로 자리 잡았다. 주방 카운터 위의 와인 랙이나 와인 전용 냉장고는 흔히 볼 수 있다. 고급 주택에는 지하 와인 저장고나 와인 룸, 시음 테이블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 얼음물 목욕을 하는 콜드 플런지 룸, 명상 공간, 전용 피트니스 스튜디오로 바꾸고 있다. 럭셔리 주택 구매자들은 이제 와인 컬렉션보다 활력과 장소 같은 웰니스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방을 특정한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렉스 공간'으로 연출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요가나 명상 공간으로 연출해 구매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물론 와인 보관용 공간 자체는 여전히 수요가 있다. 하지만 전시용 성격이 강한 와인 셀러는 우선순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음주량이 감소하면서 인테리어도 바뀌고 있다. 와인 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와인 관련 시설을 건강과 웰니스(wellness)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LA 지역의 에이전트도 비슷한 변화를 지적했다. 새로운 세대는 단순한 과시용 공간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 집이 일상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순함과 실생활의 활용도가 우선순위가 됐다.

주택 건설 방식도 이에 맞춰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형 워크인 와인 룸을 만들었다면 최근에는 집 안 벽면에 와인을 보관하는 '와인 월'이나 보다 실용적인 소형 저장 공간 설치가 늘

고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스포츠 공간의 증가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증가다.

에이전트들은 와인에서 웰니스로 변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 환경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베벌리힐스의 한 에이전트는 와인 셀러는 과거의 럭셔리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의 럭셔리는 유연성"이라며 "와인용 공간이 웰니스 룸이나 운동실, 생활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물 광고에서 웰니스 시설을 언급한 주택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웰니스 관련 시설을 언급한 매물은 전년 대비 33%나 증가했다. 반면 와인 셀러라는 표현이 등장한 매물은 약 2.8% 감소했다. 레크리에이션 룸 언급도 증가했으며 심지어 실내 타격 연습장(batting cage)이 있는 매물도 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웰니스가 주택 디자인에서 매력적인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바이어들도 집이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느껴지는 시설에 가까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문에 페인트칠 하나로 집안 분위기 반전

큰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지 않고도 집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문이 정답이다.

테리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페인트 칠을 한 문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지만 시각적 임팩트는 크다고 강조한다. 다만 환관문과 침실문, 파우더룸 등 공간별로 색상 선택과 도장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

다. 문은 건축 요소와 가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색을 입히면 공간에 개성과 완성도를 즉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색과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는 색도 좋다.

문을 벽 색깔과 맞출 때는 조금 더 어두운 톤이 효과적이다. 녹색 톤의 노랑이나 베이지 블루, 옐로우 톤의 빨강 등은 피하라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색상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유행을 타기 쉽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서울아산병원 출신
전문의 진료
나움 메디컬 센터
12600 Fair Lakes Circle, #100
Fairfax, VA 22033 / naumhealth.org
703-994-4511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나부동산**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350 (교재비: \$100) 새강이 준비됩니다. 뉴스나와 함께 성공하세요.
2026년 4월 14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폭집계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수리 전 가격: \$650,000
공사비(후불): \$45,000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1
\$1,5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5, 차고 2, 2018년.
로빈슨 HS, 좋은 위치에 전채적으로 수리된 고급집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1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2
\$1,4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2000년.
전체적으로 아주 잘 꾸며진 집

3
\$1,100,000
비엔나 싱글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1999년 집.
티운하우스 가격으로 싱글하우스 구입

4
\$873,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화장실 3+2, 차고 2, 2022년.
거의 새집 같은 이쁜 집, Westfield 고등학교

1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1,075,000
포트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트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소비자들, 연료비로만 450억불 더 썼다

전쟁 여파로 인해 에너지 값 ↑
“물가부담 저소득층 집중”
석탄 발전 재가동으로 대응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후 소비자들이 가계 연료비로만 450억 달러를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에너지 가격 정보업체인 OPIS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말 개전 이후 소비자들이 개솔린·디젤 구입에 지출한 누적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450억 달러 증가했다. 이란이 에너지 교역 요충지인 호르

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로 맞서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전쟁 직전 갤런당 평균 3달러 선을 밑돌았던 국내 개솔린 가격은 전쟁 이후 50% 넘게 급등하면서 갤런당 평균 4.5달러를 넘어섰다. JP모건은 개솔린 가격이 올해 말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소비자들이 작년 대비 1720억 달러를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구나 연료비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 연구소에



고유가 여파로 국내 개솔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로이터]

따르면 올해 중산층 및 고소득층 소비자들의 항공·숙박·관광 부문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가구의 관련 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

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구의 평균 주유량 자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석탄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WSJ이 전했다. WSJ에 따르면 대만은 가동을 중단했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최근 재가동했으며, 한국은 지난달 석탄 발전량을 3분의 1 이상 늘렸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국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발전을 감축해 왔지만, 고유가의 여파로 이 같은 흐름이 뒤바뀐 것이다.

모기지 금리 다시 급등세

유가 상승에 시장 긴장
30년 고정금리 상승세

미·이란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모기지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아 국내 주택 거래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금리정보업체 벅크레이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금리는 6.49%로 한 주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시작한 지난해 9월과 유사한 금리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자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내 모기지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초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왔다. 그러나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모기지 금리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글로벌 주요 선진국에서 확산한 장기국채 투매 현상은 모기지 금리 상승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 및 재정 건전성 우려 속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거취를 둘러싸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게 국제 투매를 촉발했다. 국내에서도 3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15일 5.1% 위로 올라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제 금리 상승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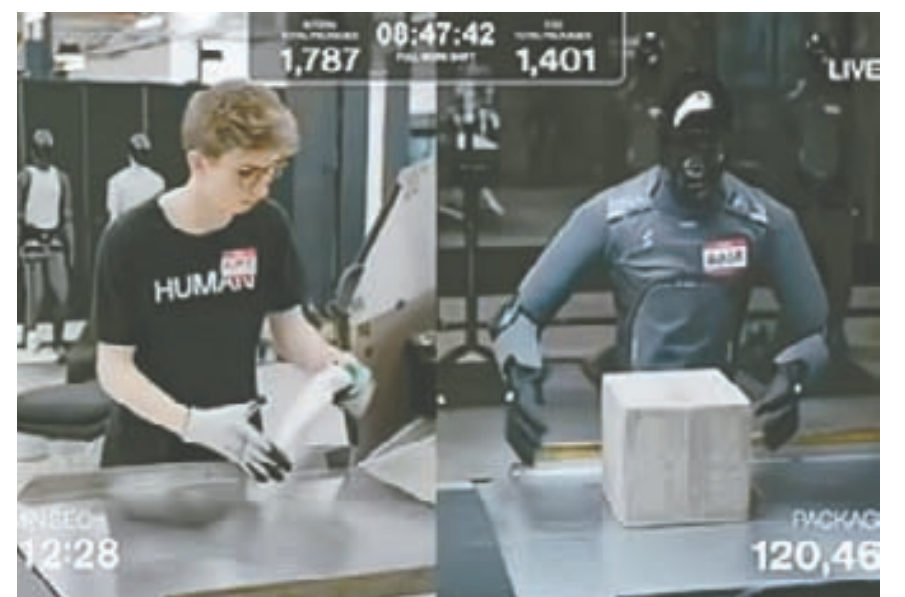
불경기에도 슈퍼 프라임 증가

780점 이상 1500만명 늘어
젊은층 중심 고신용자 많아져

국내에서 크레딧 780점 이상의 ‘슈퍼 프라임(Super Prime)’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Z세대와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은행권의 프리미엄 고객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조사 기관 트랜스유니온(TransUni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신용 잔액을 보유한 소비자 가운데 41% 이상이 슈퍼 프라임 신용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6년 전 37%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슈퍼 프라임 소비자는 약 15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슈퍼 프라임은 일반적으로 FICO 크레딧 780점 이상을 의미하며, 가장 우수한 신용등급 계층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연체 가능성이 낮고 프리미엄 카드 및 대출 상품 이용 비중이 높아 은행권 핵심 고객층으로 꼽힌다. 은행들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고신용 고객 확대 전략을 강조했다.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최고경영자는 실적 발표에서 “포트폴리오가 프라임 고객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연체율과 신용손실이 예상 범위 내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전체 대출 잔액의 약 85%가 스코어 660점 이상 고객에게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지급된 경기부양금과 소비 감소가 많은 소비자들의 신용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

석했다. 이후 임금 상승과 주식·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고신용층 확대 추세가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닷 크레딧 관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훨씬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용조회 회사들과 카드업계는 Z세대 소비자들이 크레딧을 수시로 확인하고 금융 습관 개선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최근 신규 가입자의 상당수가 연회비가 있는 프리미엄 카드 상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고객들이 신용 관련 지표에서 이전 세대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신용층과 고소득층 소비는 견조한 반면, 저신용층은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성 기자



인간 작업자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택배 분류 대결을 펼치는 모습. [Figure 유튜브 캡처]

로봇과 노동 대결서 사람이 승리

10시간 접전 끝 인간 승리
로봇은 쉬 없이 작업 진행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10시간에 걸쳐 ‘택배 분류’ 대결을 펼쳐 화제를 모았다. 지난 17일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AI’는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03’과 인간 대표 ‘인턴’이 10시간 동안 진행한 물류 작업 대결 과정을 생중계했다. 대결은 물품이 나오면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아래 방향으로 뒤집은 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 많은 물품을 분류한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총 10시간 동안 이어졌다. 인턴 작업자는 중간중간 물을 마시거나 휴식을 취하며 작업을 이어갔다. 반면 로봇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쉬

지 않고 분류 작업을 진행했다. 또 인턴 작업자는 자주 노동법에 따라 작업 중 10분 휴식 2회와 30분 식사 시간 2회를 가졌다. 로봇은 충전을 위해 다른 로봇과 3교대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갔다. 대결은 식사 시간 동안 인턴이 로봇에게 잠시 역전을 허용했다가 다시 앞서는 등 접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최종적으로 인간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인턴 작업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휴식을 취했음에도 총 1만2924개의 택배를 분류했으며 로봇은 이보다 192개 적은 1만2732개를 처리했다. 다만 로봇들은 인간과의 대결에 앞서 나흘 동안 약 11만9000개의 택배를 처리한 상태였으며 대결 종료 이후에도 현재까지 110시간 넘게 분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p>비엔나콘도</p> <p>\$339,000</p> <p>방1 / 화1+Den, 비엔나 중심 위치 전체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p>	<p>스프링필드 타운홈</p> <p>\$645,000</p> <p>방3 / 화2.55 / 차고1 /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한 로케이션</p>	<p>센터빌 타운홈</p> <p>\$595,000</p> <p>방3 / 화3.5 / 2 Assigned. 지붕, 부엌(2024), P Bath (2026), HVAC 등등</p>	<p>클립턴 싱글홈</p> <p>\$1,120,000</p> <p>방4 / 화3.5, 집 전체 수리 많이한 집</p>
---	--	---	---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대표번호: **562-896-3400**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자산 역할 명확히 구분 ... 목적 맞게 배치해야

평생 모은 은퇴자금 어떻게 꺼내 쓸 것인가

401(k)나 IRA에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적립해 온 자산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 어떻게 써야 하는가'의 문제로 돌아선다. 은퇴를 앞둔 많은 한인 투자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막막함을 느낀다. 오랫동안 '더 많이 모으는 것'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꺼내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경우가 많다. 시장이 좋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불안이, 막상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 시점에서 자주 거론되는 선택지 중 하나가 연금 상품이다. 특히 인컴 라이더(Income Rider)가 부가된 지수형 연금(Fixed Indexed Annuity, FI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은퇴 소득 설계 안에서 각 도구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연금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오해의 실체

은퇴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오해가 있다. 연금은 수수료가 높다는 인식이다. 비판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엔 모든 연금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비용 구조가 복잡하고 높은 것은 주로 전통적인 변액 연금 상품의 특징이다. 변액 연금은 펀드 운용 보수, 보험 비용(Mortality & Expense Risk), 라이더 비용 등이 중첩되어 연 2.5%에서 3.5%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장이 꽤 올라도 비용이 수익을 잠식하여 정작 투자자가 손에 쥐는 것이 기대보다 훨씬 적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 지수형 연금, 특히 인컴 라이더(GLWB)가 부가된 상품은 구조 자체가 다르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고, 시장 상승분을 일정 한도(Cap Rate)나 참여율(Participation Rate) 방식으로 적립하며, 보험사가 약속한 인컴 베이스 성장률을 바탕으로 평생 인출을 보장한다.

비용 체계도 라이더 비용 한 가지로 훨씬 단순하다. 연금 상품 전체를 하나



자문사 기반의 변액 금액은 축적의 형태로 배치할 경우 그 효과는 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수형 연금 '평생 소득' 흐름의 핵심 도구 인컴 확보·성장 추구 구간 역할 분리 필요 투명한 수수료 구조 상품 선택 기준 바뀌

의 범주로 묶어 "연금은 비싸다"고 단정 짓는 것은, 도구의 종류와 목적을 구분하지 않은 채 내린 선부른 결론이다.

▶자문사 기반 변액 연금은 왜 다른가

그렇다면 변액 연금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상품인가? 그렇지 않다. 상품의 구조와 활용 목적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 고객의 우선순위를 충실히 따를 의무가 있는 자문사(RIA)들이 일반 커미션 기반의 변액 연금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존 변액 연금은 판매 커미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판매자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운용 보수와 라이더 비용까지 더해져 총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에 얼마의 비용이 붙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자문사가 자문 수수료(Advisory Fee)만을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된 변액 연금 상품(Fee-based Variable Annuity)은 다르다. 판매 커미션이 없는 대신 자문사가 직접 수수료를 투명하게 부과하고, 그 대가로 포트폴리오 관리와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비용 구조가 단순하고 이해관계가 정렬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의 변액 연금은 세금 이연(Tax-deferred) 혜택을 활용하면서 시장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 축적(Accumulation)'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문사 기반의 변액 연금은 축적 도구로, 인컴 라이더가 부가된 지수형 연금은 은퇴 소득 보장 도구로 각각 역할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 접근이다.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상품이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그 비용 구조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인컴 라이더가 있는 지수형 연금의 작동 원리

은퇴 이후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내 자산이 내 수명보다 먼저 바닥나는 것'이다. 이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에 대응하는 가장 명확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라이더가 부가된 지수형 연금이다.

이 상품의 핵심은 두 개의 계좌가 동시에 운영된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실제 계약 시 받을 수 있는 현금 가치(Account Value)이고, 두 번째는 인출 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컴 베이스(Income Base)다.

인컴 베이스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계약 조건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 은퇴 후 인출을 시작하면 이 인컴 베이스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연 6%를 평생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현금 가치가 먼저 소진되더라도 인컴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수령액은 계속 지급된다. 이것이 '평생 보장'의 의미다.

GLWB 구조에서는 전통적인 연금화(Annuitization)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연금화를 하면 자산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보험사에 넘기게 되어 유동

성을 잃지만, GLWB는 그렇지 않다. 잔여 현금 가치의 상속이 가능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 인출도 할 수 있다.

물론 과도한 추가 인출은 향후 수령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장이 하락해도 원금이 보호되면서, 동시에 예측 가능한 소득 흐름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상품의 본질적 가치다.

▶은퇴 포트폴리오의 두 역할: 인컴과 성장의 분리

은퇴 자산 운용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두 가지 극단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전체 자산을 연금성 상품에 몰아넣어 유연성을 잃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자산을 투자 계좌나 브로커리지에서 운용하다가 시장 하락 시 소득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전자는 지나친 안전 추구이고, 후자는 지나친 수익 추구다. 두 경우 모두 은퇴

소득 설계로서는 불완전하다.

모든 것을 시장 투자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은퇴 초반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인출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순서 리스크'(Sequence of Returns Risk)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포트폴리오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자산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소진될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소득 흐름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다면, 시장 하락 시에도 투자 계좌를 건드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것이 역할 분리의 실질적 가치다.

은퇴 설계의 핵심은 자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401(k), IRA 등 은퇴 자산 중 일부는 예측 가능한 인컴 스트림을 만드는 데 배치하고, 나머지는 은퇴 기간 중에도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성장을 추구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전자의 역할에는 인컴 라이더가 있는 지수형 연금이, 후자의 역할에는 자문사가 운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적합하다. 두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때, 비로소 시장이 하락해도 흔들리지 않는 은퇴 소득 구조가 만들어진다. 은퇴를 5년에서 10년 앞둔 시점이라면 지금이 바로 전체 자산 구조를 점검해볼 적기일 것이다. **켄 최** 피아프스 자산관리 대표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목	주소	가격	특징
13343 Connor Dr, Centreville, VA	SALE	\$438K	Stone Gate at Faircrest 콘도, 방 2, 차고 1, 3층 타운형 콘도, 학군(클린 파일 초등) 좋고, 교통, 생활 편리 NEW
7209 Valleycrest Blvd, Annandale, VA	SALE	\$700K	매년매일 좋은 위치에 있는 반듯한 평의 집, 생활 가능하나 As-is Condition 으로 매매.
1936 Lord Fairfax Rd, Vienna, VA	SALE	\$1.39M	타이슨스 DMV 근처에 위치한 잘 생긴 싱글하우스, 방 5, 화 3.5, 현재 타국 외교관 \$6,200/월 렌트 (7/31 종료)
6501 Divine St, McLean, VA	SOLD	\$2.79M	셀러가 흡족할 만 조건으로 계약 완료, Seller So Happy 4/14 세팅먼트 완료
6619 Weatherford Ct, McLean, VA	SOLD	\$1.7M	Langley 권에서 제일 좋은 단지 북수 오피 중에서 경쟁 최고 특템, 바이어 So Happy 4/9 세팅먼트 완료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SOLD	\$1.25M	로리가 Hampton of McLean 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집도 팔아 갈라고 연락 줌, 4/3 세팅먼트 완료
3883 Billberry Dr, Fairfax, VA	SOLD	\$1.25M	마켓에 나온 주말 바로 계약 완료, 셀러 + 바이어 So Happy 3/17 세팅먼트 완료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울 거울/내년 봄에 파견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높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4월 ~ 10월	\$2,000 ~ \$5,500 가격대 렌트
2233 N Underwood St, Falls Church, VA	6/1 입주가능 NEW	\$10,000 2020년에 새로 지은 싱글 홈, Haycock ES - Longfellow MS - McLean HS
5280 Julie Star Dr, Centreville, VA 20120	5/5 입주가능 Coming Soon	\$3,300 교통/생활/학군/안전한 인기있는타운하우스 단지, 방 3, 화3.5, Nice Owner
2302 Tanglevale Dr, Vienna, VA	5/1 입주가능	\$4,900 평화로운 동네 싱글하우스, 방 4, 화2.5, 이쁜 정원, Flint Hill ES, Thoreau MS, Madison HS
8370 Greensboro Dr, McLean, VA	6/1 입주예정 PENDING	\$3,400 사랑하는 우리 교민 2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793 Brentidge St, Vienna, VA	5/1 입주예정 PENDING	\$4,800 주재원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448 McLean Mews Ct, McLean, VA 22101	4/21 입주예정 RENTD	주재원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RENTD	주재원 (3년)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주해 중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팅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미국판 ‘성당 오빠’ 틱톡 중심 확산

가톨릭 신앙·문화에 열광 Z세대 ‘가톨릭맥싱’ 인기 자기 계발하고 교리 몰입 연인 만날 기회로 꼽기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시작된 ‘가톨릭맥싱(Catholicmaxxing)’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맥싱은 Z세대가 사용하는 용어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룩스맥싱’은 외모를 극단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일부 젊은 남성들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헨섬 스쿼드워드’처럼 보이게 위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톨릭맥싱은 가톨릭 신앙이나 문화를 일상의 삶에 최대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테인드글라스나 고전 명화, 수녀복이나 사제복 스타일의 패션 등 가톨릭 특유의 분위기를 미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즐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도덕적으로는 세속적인 쾌락보다 자기 절제와 고전적인 도덕 가치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신앙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거나 성당에 가는 모습을 합하게 표현하며 “나 가톨릭 맥싱 중이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가톨릭맥싱은 꼭 가능한 한 가톨릭적으로 살려는 움직임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이 용어는 오히려 젊은 세대가 종교를 새롭게 발견하는 현상을 가볍게 유행어로 표현한 것에 가깝다.

이 현상은 주로 틱톡에서 퍼졌다. 22세 인플루언서 앤서니 그로스는 가톨릭맥싱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팔로워만 2만4900명이다. 그로스는 사순절 40일 동안 씹어 먹는 음식을 먹



워싱턴의 성모 무염시태 국립 대성당으로 가는 신자들. 최근 가톨릭 신앙이나 문화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가톨릭맥싱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지 않고 금식하며 물과 맥주만 섭취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영상에서 그로스는 상의를 벗고 무릎을 꿇거나 먹었는지 이야기하지만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 17세기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파울라너 수도회 수도사들은 사순절 금식 기간에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액체 빵으로 불리는 영양가 높은 도수 낮은 맥주를 양조해 마셨다. 그로스는 이 전통을 되살려 매일 어떤 맥주를 마셨는지, 몸무게 변화는 어떤지, 이 과정이 신앙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틱톡 숏폼 영상으로 풀어내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콘텐츠는 어느 정도 ‘브로(Bro) 문화’와 연결됐다는 평가를 받

는다. 브로 문화는 남성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이나 형제애를 뜻했지만 최근에는 동료애와 의리, 자신감, 과시, 공동의 관심사 등 젊은 남성 중심의 강한 집단주의 경향을 보인다. 배타적이거나 마초적 심리 등 부정적인 면도 있다. 테크 브로나 짐(Gym) 브로, 크립토 브로 등 분야별로 다양하다.

가톨릭맥싱은 릴리저스 브로(Religious Bro)와 테오 브로(Theo Bro)와 연결된다.

릴리저스 브로는 종교를 라이프스타일이나 자기계발과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느낌으로 종교를 통한 절제나 전통적인 남성성 회복, 공동체적 소속감을 추구한다. 성당이나 교회에서

찍은 운동 인증샷이나 목주나 성경 옆에 단백질 셰이크를 놓은 이미지 등을 올린다.

테오 브로는 교리에 몰입하는 성향이 강하다. 성경 구절을 분석하고 특정 신학자의 이론을 공부하며 격렬하게 토론도 벌인다. 지적 우월감이나 신학적 정통성, 논리적인 완벽함을 추구한다. SNS 프로필에 신학자의 초상을 걸거나 라틴어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한 언론은 테오 브로를 개종자가 많고 신앙을 봉사나 공동체가 아니라 규칙이나 권력 중심으로 이해하는, 온라인 성향이 매우 강한 종교인이라고 규정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 봉사과 공동체라는 면에서 가톨릭맥

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통적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성경 구절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시대가 바뀌었다고 반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모이는 계기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맥싱을 주도하는 이들은 오히려 연인을 만날 수 있는 점을 가장 큰 매력의 하나로 꼽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런 현상이 교회 복귀로 이어지는지는 불분명하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18~24세 가운데 가톨릭교회에 새로 나가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12%는 오히려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움직임이라는 면에서 정치적 성향과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JD 밴스 부통령이 가톨릭으로 개종한 계기와 영적 탐구를 다룬 ‘커뮤니언: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다’를 오는 6월 출간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이런 정치사회적 맥락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종교를 ‘쿨’하게 보는 SNS 트렌드를 Z세대의 성향에서 찾기도 한다. 너무 빠른 변화와 디지털 환경에 지친 젊은 층이 라틴어 미사 같은 역사가 길고 엄격한 전통 가톨릭의 의례나 미학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목주를 패션 아이템처럼 활용하거나 성당의 건축미나 고전적인 분위기를 자신의 컨셉트로 삼는 현상을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낮추어볼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다.

안유희 객원기자

이라크 법원 “본인이 선택한 종교 표기” 판결

이라크 법원이 12일 기독교를 믿는 여성이 공식적인 종교를 기독교로 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종교 자유와 소수종교 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리암으로 알려진 여성은 지난해 1월 이라크 정부의 민사등록부에 이슬람으로 기재된 자신의 종교를 원래 자신이 믿는 신앙에 맞게 기독교로 복구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마리암의 종교는 미성년자 시절 강제로 바뀌었다. 어머니가 무슬림 남성

과 결혼하면서 자동으로 이슬람으로 등록된 것이다. 2016년 제정된 이라크 국가신분증법 제3호 제26조 2항에 따르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 미성년 자녀도 그 종교를 따라야 한다.

법원은 판결에서 마리암이 자신의 종교를 직접 선택하고 공식적으로 등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마리암은 법적으로도 기독교 신앙을 믿을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중

요한 법적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라크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적인 연방파기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와 인권단체들은 상급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라크 사법 체계 안에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관한 법적 원칙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식 신분증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종교를 기재하는 제도 자체도 다시 논쟁이 됐다.

“종교·양심과 충돌할 때 대학 수업 과제 바꿔야”

유타주에서 대학 수업 과제가 학생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과 충돌하는 학업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타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한 HB204(고등교육 학생 신념 조정 법안)에 따르면 학교는 시험이나 기타 학업 요구 사항과 관련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일정 범위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활동 참여를 면제하

거나 과제 제출 기한을 조정하거나 대체 시험이나 대체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을 수용할 경우 수업의 핵심 목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학생이 필수 학습 성과나 역량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법안은 석사 과정인 딸이 의원에 게 LGBT 정책을 지지하는 편지를 쓰는 과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본 마이클 J 피터슨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교육 기관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오는 12월 1일까지 유타 고등교육위원회에 정책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안유희 객원기자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오승환 410.303.0452

Seung Oh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Flipping 전문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은 20년 경력의 비키리 부동산과 의논해 주세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집을 가장 매력적으로 디자인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드립니다.

- ✓ 수리비 선지출 없음 (클로징 정산)
- ✓ Before / After 전략으로 집값 상승
- ✓ 빠르고 안전한 판매

집값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실제 사례 광고, 스탠포드 싱글홈

주방 주방 바퀴벌레있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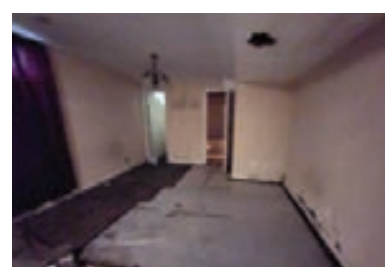
BEFORE



AFTER

지저분한 캐비닛제거후 주방 등 설치, 간단히 분위기를 바꿈.

지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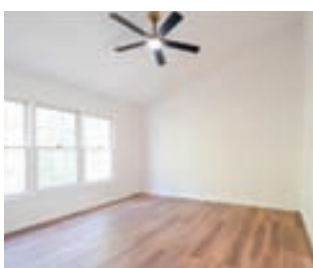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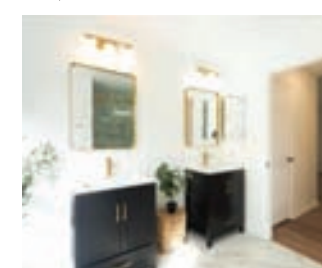
AFTER

지하 물난리난집, 지하 간이바, 밝은 천정등 설치.

안방 카펫에서 마루시공, 씰링팬 설치



목욕탕 넓은 샤워장설치, 그림같은 욕실



바이어: 어떠한 험한집도 사시면 깔끔하게 단장하여 드립니다.

셀러: 아무리 험한집도 이쁘게 수리하여 빨리 팔아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전문업체

임대면허취득, 임대 인스펙션, 납성분검사, 세입자와의 분쟁해결, HOA 위반사항 해결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납 성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전문 속의 국내 주택시장



백기환 뉴스타부동산 팜데일 명예부사장

고금리·전쟁 장기화에 매매 심리 냉각 발렌시아·랭캐스터 외곽 수요는 증가

최근 2개월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충격으로 인해 다시 한번 안갯속에 갇혔다. 2026년 초반 해도 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힘입어 거래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듯했으나, 2월 말 발발한 이란 전쟁은 시장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에너지 쇼크와 인플레이션

이란 전쟁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가볍게 돌파했다. 이는 단순히 주유비 상승에 그치지 않

고 공급망 전반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며 잠잠하던 인플레이션 수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지난 3월과 4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가설은 힘을 잃었다.

▶모기지 금리: '6%대' 고착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은 국채 금리의 급등이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렸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10년 만

기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이에 연동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다시 6.5% 선을 위협하며 주택 구매 대기 수요자들을 다시 관망세로 돌려세웠다.

▶공급 부족과 가격의 기현상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저금리 시절에 받아 둔 대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잠김 효과'가 전쟁 시기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비상

사태는 가계로 하여금 "지금 집을 파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강화시켰고 이는 매물 부족에 따른 하방 경직성을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상관관계 분석

현재 국내 부동산과 이란 전쟁의 상관관계는 '지정학적 리스크 → 에너지 가격 폭등 → 끈적한(Sticky) 인플레이션 →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 주택 구매력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최근 2개월은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으로 투영된 시기였다고 본다.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점

결국 이란 전쟁의 향방이 유가를

결정하고 유가가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고금리 기조는 2026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국내 부동산은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거시 경제의 변동성이 찾아올 때까지 유동성을 확보하고 관망하는 전략적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다만 대도시를 약간 벗어난 발렌시아, 팜데일 그리고 랭캐스터 지역은 여전히 40만~50만 달러대의 단독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바이어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보일 수 있다. 타인종 유입이 많아지면서 지역 간 도로 확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 이야기

'전쟁세'의 시대



애니윤 골드웰 뱅커 베스트부동산

고금리·고물가 속 얼어붙은 매수 심리 관망보다 선점 전략이 중요해진 시기

최근 국내 경제의 화두는 단연 '전쟁세(War Tax)'다. 이는 국가가 징수하는 공식 세금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이 마치 세금처럼 가계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현상을 뜻한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금'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많은 이들을 관망세로 돌아하게 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지금은 수년 만에 찾아온 전략적 우위의 시기가 되고 있다.

현금 구매자가 누리는 확실성과 협상력: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높은 모기지 금리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 인하시점이 지연되면서 용자에 의존하는 매수자들은 발이 묶였으나, 현금 구매자는 이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특히 현금 오퍼는 셀러에게 '거래의 확실성'을 제공한다. 용자 승인 거절 등의 변수가 없기에 에스스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구매자의 강력한 가격 협상력으로 이어진다.

용자 구매자를 위한 전략: 이자율을 이기는 가격 협상: 그렇다면 용자를 통해 집을 사야 하는 이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바이어 간의 경쟁이 줄어든 지금은 오히려 '가격 딜(Deal)'이 가능해진 시기다. 높아진 이자 비용만큼 매매 가격을 낮게 오퍼해 실질적인 취득 원가를 줄이는 전략을 추천한다. 경쟁이 치열할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낮은 가격 낙찰'이 지금은 가능하다. 또한 추후 금리가 내려갔을 때 재융자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낮은 경쟁률을 활용해 좋은 가격에 집을 선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

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실물 자산 선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고물가 시대에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자산의 실질적 손실이다. 영리한 투자자들은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남가주 지역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자산이다. 현금 구매자는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 용자 구매자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결국 '전쟁세'가 지배하는 환경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시련이나 전략을 갖춘 이들에게는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황금기다. 남들이 주저할 때 확실한 자본력 혹은 영리한 협상 전

략으로 우량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자산 방어와 증식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다.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처럼 구매자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 또한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경쟁이 불기 시작하면 지금 같은 가격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결단은 결코 늦지 않은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며 그 시간을 건디게 하는 힘은 행동하는 결단력에서 나온다.

필자 또한 자주 부동산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이 거친 파고를 넘어 성공적인 자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전 6시, 헬스장에서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출근길에는 미국 증시를 정리한 콘텐츠를 듣고, 오전 8시 팀 회의에서는 고객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오후에는 고객 상담과 법인 미팅이 이어진다. 시장이 마감하면 다음 날 전략을 준비하고, 밤 10시30분 미국 시장 개장을 확인한 뒤에야 하루가 끝난다.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의 일상이다. 유튜브와 AI가 시장을 읽고 종목까지 추천하는 시대에, 과연 PB는 여전히 필요한가. 질문은 정당하다. 앱 하나면 대부분의 거래도 가능하다. 기술이 PB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쉬운 사

김성재의 마켓나우

AI는 전문가를 검증해 진짜를 남긴다

실이 있다. AI는 PB를 없애기보다, PB의 일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부족이었다. 지금은 정반대다. 문제는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일이다. AI는 정보를 대충화했지만, 판단의 책임까지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포트폴리오 추천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급락할 때 그 전략을 유지

할지, 가족의 삶과 현금 흐름, 세금과 은퇴 계획까지 고려해 위험을 감수할지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시장은 같지만, 투자자의 사정은 같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PB의 역할도 달라진다. 과거 PB의 경쟁력이 정보 접근성과 상품 제안에 있었다면, AI 시대 PB의 경쟁력은 해석과 판단에 있다. 상품을 소개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고객의 재무 상황과

삶의 우선순위를 해석하고, 여러 선택지 가운데 무엇이 더 적합한지 함께 판단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 판단 역시 개인의 감각이 아니라 리서치센터와 세무·부동산·법률 전문가가 결합한 협업의 결과다. 이 변화는 PB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AI 시대에 먼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인간 전문가가 아니다. 평균적인 전문가다. 뉴스 전달과 정보 정리에 머무는 역

할이라면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다. 하금융연구소의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영리치의 50%, 올드리치의 71%가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로 PB를 꼽았다. 정보 채널은 폭증했지만, 최종 판단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다. 다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 관리는 결국 정보 산업이 아니라 해석 산업이다. 정보도, 상품도, 시장도 이미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그것을 삶과 연결해줄 기준이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PB의 일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PB전략본부 상무

Advertisement for Washington Post. Text: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Contact: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Advertisement for Long & Foster Real Estate. Text: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Phone: 703.486.6082. Listings include properties in Arlington, Manassas, Fairfax, and West Springfield. Contact: 장미원, Associate Broker, Licensed VA/DC/MD.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월드컵 16골 클로제 내 앞 설 자 누구냐 메시냐, 음바페냐

월드컵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골잡이는 독일의 '헤딩 머신' 미로슬라프 클로제다. 2002년 한일 대회를 시작으로 2014년 브라질 대회까지 4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으며 도합 16골을 몰아쳤다. 다음 달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선 새로운 인물이 클로제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 골잡이 타이틀을 꿰찰 가능성이 크다. 유력한 도전자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그리고 '축구 황제' 후계자로 첫 손에 꼽히는 킬리안 음바페(프랑스)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와 음바페의 프랑스는 각각 지난 대회 디펜딩 챔피언과 준우승 팀이자 이번 대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지목하는 우승 후보들이다.

특히나 본선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 만큼 4강 이상에 오르는 팀은 총 8경기(기존 7경

기)를 치르게 돼 이전에 비해 득점 기회도 많아졌다.

지난 2006년 독일 대회를 시작으로 4년 전 카타르 대회까지 5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메시는 통산 13골(26경기)을 기록 중이다. 지난 1958년 스웨덴 대회에서 5경기를 치르며 13골을 몰아쳐 단일 대회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린 쥐스트 폰텐(프랑스)과 함께 공동 4위다.

메시 위로 '폭격기' 게르트 뮐러(14골·독일)와 '축구 황제' 호나우두(15골·브라질)가 있다. 두 선수를 뛰어넘으면 클로제가 기다린다.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와 더불어 사상 최초로 6차례 본선 무대를 밟는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4골 이상을 넣으면 최다골의 주인공이 된다. 1987년생으로 전성기를 훌쩍 넘긴 만 39세지만, 여전히 전성기급 골 결정력을 유지 중이라 기대를 모은다. 4



신·구 '축구의 신' 최다골 경쟁
메시는 4골, 음바페는 5골 남겨
39세 메시, 신기록 마지막 기회
클로제 "누가 되든 박수 보낼 것"

순위	선수	득점
1위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	16골
2위	호나우두(브라질)	15골
3위	게르트 뮐러(독일)	14골
4위	쥐스트 폰텐(프랑스)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13골
5위	펠레(브라질) 킬리안 음바페(프랑스)	12골

년 전 카타르 대회에서도 7골을 몰아쳐 골든볼(MVP)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선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과 함께 조별리그 J조에서 출발한다. 본선 무대를 처음 밟는 요르단과의 경기가 다득점 기대로 벌써부터 주목 받는다.

경쟁자 음바페의 기세도 매섭다. 지난 2018년 러시아 대회 우승에 이어 4년 전 카타르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이끌며 두 대회 연속 결승을 경험했다. 두 차례 월드컵에서 14경기만 치르고도 12골을 몰아넣으며 '레전드' 펠레(12골)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메시와는 한골 차다.

카타르 대회에선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폭발하는 등 총 8골을 터뜨려 생애 첫 골든부트(득점왕)를 차지했다. 28세로 전성기에 접어든 데다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도 올 시즌 24골을 쏟아 올리며 리그 득점 선두에 오르는 등 절정의 골

감각을 유지 중이라 월드컵 두 대회 연속 득점왕 등극 여부에 눈길이 모아진다.

프랑스는 세네갈, 이라크, 노르웨이와 함께 I조에 속했다.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이 이끄는 노르웨이와의 승부가 부담스럽지만, 나머지 두 팀(세네갈, 이라크)이 한 수 아래라 자국 대표팀 선배 폰텐처럼 대량 득점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기존 기록 보유자 클로제도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득점왕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독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북중미 월드컵에서 내 기록이 깨질 거라 확신한다"면서 "많은 이들이 예상하듯, 메시 또는 음바페가 나를 뛰어넘어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 기록될 것 같다. 어느 쪽이든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피주영 기자

↪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 로컬 마케팅 진단 (신문독자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하십시오!"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I have to run; 이만 가야겠어

(It's Saturday morning and Roberta and Roger are talking in the kitchen -)

(토요일 아침에 로버타와 라저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Roberta: What are you doing today?
로버타: 오늘 뭐 할 거야?
Roger: I'm going to wash the car and then clean out the garage.
라저: 세차하고 차고 청소할 거야.
Roberta: The garage has needed to be cleaned for some time.
로버타: 차고는 오래전에 청소를 했어야 하는데.
Roger: I know. What are you doing today?

라저: 알아요. 당신은 오늘 뭐 할 거야?
Roberta: I'm going to get my nails done.
로버타: 손톱 다듬을 거야.
Roger: Anything else?
라저: 다른 건?
Roberta: (Looking at her wrist watch) Oh my God! It's almost 1:00.
로버타: (손목 시계를 보면서) 어머니! 한 시가 다 됐네.

Roger: What's the matter? 라저: 왜 그래?
Roberta: I have to go to the bank. It closes in ten minutes. I have to run.
로버타: 은행에 가야 되는데. 10분 있으면 문 닫는단 말이야. 빨리 가야겠어.
Roger: Okay. I'll see you when you get back.
라저: 그래. 은행 일 보고 와서 보자고.
.....
기억할만한 표현

**clean out (a space): 청소하다.
"I'm going to clean out the closets today." (오늘 옷장 치울 거야.)
*for some time: 오랫동안.
"He's been living in Los Angeles for some time." (그 사람은 LA에서 오랫동안 살았어.)
*(one) gets (one's) nails done: 손톱을 다듬다.
"She gets her nails done every Saturday morning." (그녀는 토요일 아침이면 손톱을 다듬어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양털로 표면에 보풀이 일게 짠 두꺼운 모직물. 카펫. 알라딘은 마법의 ~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 (3)사람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 (5)귀지를 파내는 도구 (6)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헐뜯어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짓 (8)악보를 그릴 수 있도록 다섯 개의 선이 그려져 있는 종이 (10)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어 달라고 원고를 써서 보냄 (12)긴 외부 모양의 비옷. 눈비를 막기 위하여 덮는 덮개. 화물차에 짐을 싣고 ~로 씌웠다 (13)휴대용 점심 (15)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16)어린이의 말로, 더러운 것. 아가, 그건 ~니까 만지지 마 (19)팝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 (21)다리의 윤곽을 나타내는 선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23)한 살 터울로 아이를 낳은 아이 (25)영양소가 아니면서 동물의 정상적인 발육과 생리작용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 화합물. ~는 발견된 순서에 따라 A, B, C, D, E 등의 순으로 명명되었다 (26)대부분 가시가 있고 잎은 없으며, 즐기는 공 모양 또는 원기둥 모양이다

세로열쇠

(1)두 눈썹의 사이. ~을 찌푸리다 (2)개나 돼지에 생기는 병. 흔히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제 고만 먹어라 ~ 날라 (3)풀과 티끌. 지푸라기. 쓸모없고 하찮은 것. 목숨을 ~와 같이 버려서는 안 된다 (4)운반할 수 있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배. 거대한 ~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옮겨지고 있었다 (6)서로 가까이 인접하여 사는 집 (사람). ~ 사촌 (7)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8)여자의 손위의 남자 형제 (9)지각이 흔들리는 일 (11)고스톱에서, 매조·흑짜리·공산의 열끗짜리 석 장으로 이루어지는 약 (12)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 (14)솟이나 도자기·기와·벽돌 따위를 구워 내는 시설 (15)성질 급한 사람이 여기서 승냥을 찾는다고 하죠 (17)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등교함 (18)즐거기 위하여 하는 일.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즐겨 하는 ~는 등산이라고 하죠 (20)토목 공사에 쓰는 중량이 큰 기계 (22)강이나 좁은 바닷물목에서, 배가 닿고 떠나고 하는 곳 (23)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의 정을 느끼다 (24)잡은 그대로의 성한 물고기

스도쿠

2	3	9				5		1
		6				2	3	9
		5	3	6		7	2	
9	5	2						8
1								
	8	3		2	4	9	5	
		8	9		3	4	1	6
3		4	6	8			7	
	6		2	4	7			3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6	8	7	4	2	1	9	5
5	7	2	1	8	9	4	6	3
9	1	4	3	5	6	8	2	7
7	5	6	4	2	1	3	8	9
2	3	9	5	6	8	7	4	1
4	8	1	9	3	7	2	5	6
8	2	7	6	9	3	5	1	4
6	4	3	2	1	5	9	7	8
1	9	5	8	7	4	6	3	2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NI Financial
worldwide Marketing



UNI는 19개의 지사를 통해 지난 16년간 재정 플랜을 설계해 드리고 있는 One Stop Financial 전문 에이전시입니다.



“당신의 재정은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UNI 전문가들이 **40**여개 회사를 비교하여 분석한
맞춤형 재정 설계를 통해

고객님과 가족 모두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Lori Moon
문 로리

District Marketing Director
703-895-7648



Linda Lee
이 린다

Marketing Director
443-515-8522



Unsin An
안은신

Marketing Director
804-464-3662



Eunice Lee
이은경

Senior Agent
703-855-0929



Kyung Ja Oh
오경자

Senior Agent
443-690-4290



Tina Park
박민지

Field Agent
410-353-6402



Miwon Chang
장미원

Field Agent
703-486-6082



Shin Hyung An
안신형

Field Agent
804-690-0323



생명보험 | 개인 은퇴연금 | 비즈니스 절세 상품 및 은퇴연금 | 재산 상속 플랜 | 학자금 준비 | 건강보험 | 재정교육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https://uniwfm.com>

패어팩스 (VA) **703.865.8788**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

리치몬드 (VA) **804.464.3662**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엘라트 시티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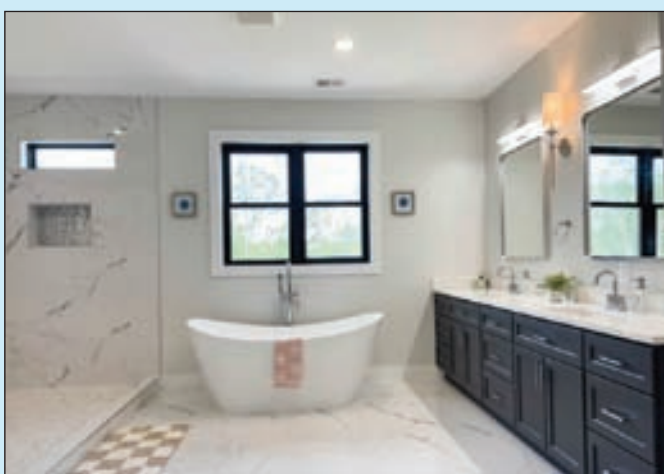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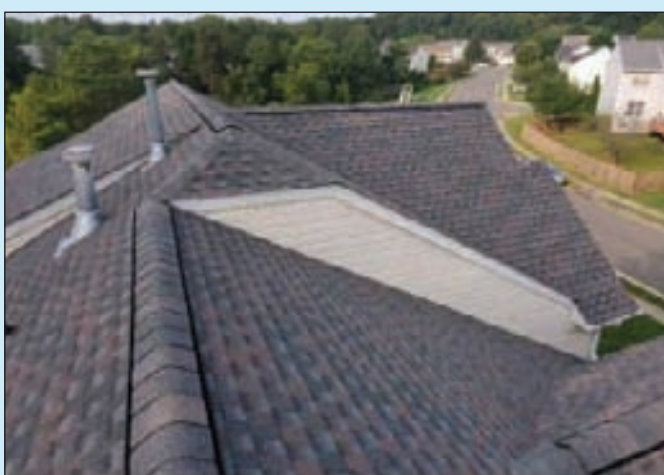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폼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5월
구
인
광
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중양일보

① 워싱턴 중양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g., #310, Annandale, VA 22003

창고 사무실 RENT

사무실 딸린 창고 같이 쓰실분
위치: 매나사스 (센터빌에서 15분)

창고(1700sf)
사무실(800sf)
*사용 가능합니다

(202)515-6746
(월~금: 9am~12pm)
office@ecinvest.net

구인

스파에서 바디 필링하실 여자 직원 구함

유 경험자, 무 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Stafford, VA

(540)368-9699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① 워싱턴 중양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g., #310, Annandale, VA 22003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 골프바지/티셔츠/남방/와이셔츠 Buy2 Get1 Free \$100 (단 1장은 \$50)
- 봄·여름 점퍼 \$100
- 봄·여름 콤비 (자켓) \$150
- 춘·하·추·동 신사복 완비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면바지 넥타이/벨트(가죽)/양말/팬티/등산바지/신사구두

한국신사복 알베르토 세리니 571-481-1020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플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메릴랜드

구인/사무/직원모집

함께 세일즈 하실 팀원 구합니다.
-메릴랜드 주정부 LED 교체 프로그램
-메릴랜드 BGE, PEPCO 서비스 지역
-기본적인 영어소통 가능자
-Sales Training 제공 및 Transportation 지원 가능
-연 10만불 이상충분히 가능
문의: 410-599-7000

H-Mart Wheaton 매장 직원 모집
모집부서: Customer Service
근무지: 워튼점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301-942-5071

식품 도매 회사에서 직원 구함
-사무직 0명, 배송기사 0명
주 5일 근무, Full time or Part time
Paid time off, Medical insurance 제공
eni@enidist.com
Essex MD (301)477-4010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 (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간병인
-건강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기타구인

한식당 해반(HYEBAN)에서 직원 모집
-주방 쿡/헬퍼/웨이츄리스 (숙식제공)
Tel: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리스 (풀/파트타임) 직원 구합니다.
메세지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443-243-8429

메릴랜드 하노버에 위치한 무궁화시니어 의료 복지관에서 직원 구함
-풀타임 운전하실분
-주방보조
410-850-4059

중고 매매/기타

무빙 세일합니다.
고급 리빙룸 셋, 책장, 도자기, 고급 일본 접시, 노래방 기계, 금고, 병풍등등
301-801-9921

케어 피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6/08 - 6/12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버튼스빌 싱글홈 1층 렌트 (콜롬비아에서 15분 거리)
방2, 화1.5, 욕실, 주방, 프리 파킹,
유포 \$1,900
443-983-8100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방 렌트
Arundel Mills Live Casino 뒷편
프라이빗 부엌, 세탁실, 인터넷, 유포,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금연 필수, 남자분 환영
804-381-1552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 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 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서 15분 거리
443-797-7293

부동산 매매

For Sale by Owner MD Jessup Builders Model
55+ Condo: 4bd 3.5bt, 2 car garage
3,200ft, near 95 & 32 \$545,000
Phone: 443-838-5458
E-mail: vrupen@gmail.com

사업체 매매

성업중인 세탁소 (Dry Cleaners) 매매
-최적의 입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 센터내 위치
-30년 안정 운영, 많은 단골 고객층 확보
5마일내 경쟁업체 무, 무한한 성장 잠재력
-완벽한 설비 시설
-매매가 협상 가능, 방문 환영
-Manassas, VA
(문의) 한국어: 703-678-9790
영어: 703-499-2466

비어와인 컨비니언 스토어 매매
-월 1만5천 손수익
-매매가 15만 + 인벤토리
-메니저먼트 가능
-피터스버그, VA
703-229-9702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 매매
-고정 단골 손님 많음
-월세 \$2500, 월 손수익 \$6천 이상
-PT 일하실분 구함
703-907-9541 (문자 주세요)

40년 성업중인 테일러스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테렌도장 나간자리, 2,750 sf
문미에 703-534-4989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 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굿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 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델리 \$170,000 렌트 \$5,791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버지니아

구인/사무/직원모집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e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2014a@gmail.com

첼트리 러브랜드 홈헬스 사무직 직원 구함
-경력 무관
-이중언어 필수, 풀타임 가능자
-건강보험, 401k, 유급 휴가 제공
문의: 703-657-0944
이력서 이메일: account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법률 보조원 구함. 타이슨 코너
이력서: admin@eb3recluit.com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택배 근무
문의: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hr@worldbankcard.net

Bristow, VA에 위치한 Commercial Remodeling 회사에서 Project Manager 구함. Auto Cad 경험 필수
703-507-3495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 Office Maintenance
□ Van Driver
은퇴하신분 환영
이력서 제출 bongL@ccdc.edu
www.ccdc.edu

굿피플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험자, 한/영 능통자 우대

풀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info@goodpeopleusa.org

탐여행사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센터빌 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서 Full Time 텔러를 찾습니다.
근무지: 센터빌 지점
베네핏: 의료보험, 유급휴가, 401K
자격요건: 합법 신분자
이력서: hr@wooriamericabank.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험자 유대
문의: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합니다.
다.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무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안과에서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dceyclinic@yahoo.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문 한식

해반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 주방 쿡 / 헬퍼
- 웨이츄리스
- 숙식 제공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매매

40년 성업중인
테일러 샵

- ★ 은퇴관계 매매
- ★ 좋은 조건
- ★ 리치몬드 중심지

문의: 전화 or 문자
703.937.7261

직원 구함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Fair Oaks Mall 내 Macy's 옆에 위치
JC Penney, SUSHI ON, New Macy's 127, Lord & Taylor, JJ Watch & Jewelry Precise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중앙일보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universa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종언 연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문
자녀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타임 직원 구함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 Resume to:naturadent@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페어팩스 Sushi Friends Hashi 직원 구함
니다.
-서버 (영어 필수), 스키 헬퍼
-경험자 페이 우대
-풀타임, 파타임
703-628-9168 (문자 요망)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타임
▶ 571-991-4172

기타구인

스파에서 바디 필링 하실분 구함
-여성분
-유경험자, 무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가능)
-스테이프드, VA
문의: 540-368-9699

경험있으신 간병인 구합니다. 영어 약간
시간당 \$25, 타이슨스코너
202-860-7680

가사도우미 급구 - 장기 근무 환영
요리·세탁·청소 등 기본 가사
오후 12시~7시
McLean 깨끗한 가정집
안정적 장기근무 / 대우 좋음
연락: 703-795-1896

밀워키 캐비닛 공장서 목수 구합니다.
델레스 공항 근처 (Dulles, VA)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정 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매건 그루밍 선생님 구함
알렉산드리아, 레스톤 지역
givingtree.alison@gmail.com
▶ 문의: 571-660-8182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메케닉
▶ 703-220-1400

InCourage Martial Arts 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페어팩스, 애쉬번, 퍼셀빌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센터빌 Faircrest 타운홈 렌트 \$3,200
방3, 화2.5, 차고2, 콜린 파울초, 마루, 리모
델링, 핏가늌, 66/28/286/29/50
교통요지
▶ 571-239-6054 (문자)

센터빌 싱글홈 지하 전체 워크 아웃, 출입문
별도, 모두 독립적임, 주방, 세탁 설비 완비,
올 리모델링, 주차 공간 충분, 핏가늌
571-214-0404

페어팩스 메리필드 지역 타운하우스 렌트
방4, 화3,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주차2
\$2,400
571-229-7124 (문자 요망)

센터빌 타운홈 렌트
방3, 화2.5, 밝고 환한 편리한 타운홈, 업데
이트한 부엌 (그레닛 카운터탑, 새 냉장고),
새 마루, 새 페인트, 잘 수리된 화장실,

펜스 있는 뒷마당, 독점 파킹 2개, Visitor 파
킹 다수, 교통 편리
▶ 703-477-3114

콘도 렌트

업그레이드된 밝고 환한 콘도 \$1,700
방1, 화1, 새 나무 마루, 넓은 리빙룸, 나무가
보이는 경치, 편리한 1층, 새 페인트, 넓은 새
발코니, 물값 & Gas값 포함, 교통 편리
Falls Church, 애난데일 10분
▶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렌트 \$2,000
방2, 화2, 나무 마루, Granite Counter Top,
탁트인 구조,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넓은 리빙룸, 발코니, 밝고 환한 콘도, 롯데 마
트 근처, 교통 편리
▶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방 렌트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시루 앞 방 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여성분 환영
703-973-8123

게인스빌 싱글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워크아웃, 방2, 풀베스, 리모델링된 주방,
새 세탁기/건조기, 새 페인트, 새 플로어,
여성분 환영
703-501-4478

애난데일 INOVA 뒤 타운홈 반 지하 렌트
방1, 화1, 세탁실, 가구 일체, 유포 \$800
6월초 입주, 직장인 여성분 환영
703-350-1986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 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개인 주차
571-232-6052

헤이마켓 도미니언 벨리 라센시 골프장 안에
있는 싱글홈 2층 전체 렌트
방1, 리빙룸, 풀베스, 골프장 회원 가능
문자로 연락 바랍니다.
516-242-8466

애난데일 방 하나 렌트 합니다.
간단 취사, 유포, 가구 포함
703-677-1889

센터빌 (New Braddock Road) 타운홈 방 하
나 렌트,
남자분 환영, 저녁 6시 이후 전화 요망
703-606-005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홈 방 하나 렌트
인터넷,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욕실 별도,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30-7121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 방, 화장실, 마루, 파
킹, WIFI, 학생/여성분 환영
571-239-6054 (문자)

애난데일 싱글홈 방 렌트,
495, 노바 & 조지메이슨 6분, 가구 일체,
인터넷, 금연자, 여자분 환영, 주차 넉넉
571-205-0903

로튼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 전체 렌트
방2, 거실, 부엌, 화, 세, I-95 1마일 거리, 가
족 환영, 출입문 별도
703-774-4939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
고 조용한 뒷출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K마켓 뒤 싱글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2, 거실, 욕실, 가구 완비, 유포, 워크아웃
703-835-0945

애난데일 한강 뒤 방 하나 렌트 합니다.
여자분 환영
571-355-922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방1, 화1 렌트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유포, 엘리베이터
703-989-0103

센터빌 H마트 근처 타운하우스 지하 전체 렌
트, 앤드 유닛, 출입문 별도, 욕실 완비, 유포
(3시 이후 전화요망, 또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703-474-5590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홈 작은 방 임대 \$700 (유포)
문의: 301-928-4125

센터빌 타운홈 큰방, 개인욕실 \$1,200
베이스먼트 전체 \$1400
571-243-7027 (Text)

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1, 출입문 별도
간단 가구, 취사, 인터넷,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로튼 싱글하우스 반 지하 전체 렌트
\$2,000 (유포), 방3, 거실, 주방,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571-488-58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사무실/점포 렌트

창고/사무실 렌트
매나사스에 있는 사무실 딸린 창고 같이 쓰실
분, 센터빌에서 15분 거리
창고 1700sf, 사무실 800sf 사용 가능
전화: 202-515-6746

애난데일 에버그린 오피스 사무실 렌트
월 \$500

문의: 703-677-1889

워싱턴 DC 중심가 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버니언 스토어, 커피숍
문의: 703-231-5572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일반 오피스
또는 병원, 한의원도 가능, 즉시 입주 가능,
390sf, \$24/sf/yr, 3-10년
연락처: windmill7000@gmail.com

센터빌 던컨 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 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861-9923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애난데일 오피스 매매 \$280,000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
스, 교통 편리, 넓은 주차장, 애난데일 중심가
▶ 703-813-8949

1. 페어팩스 뉴타운 홈 매매
2. Langley high school 학군 지역
주택 매매
(703) 677-1889

1. 센터빌 중장고 회 근처 싱글 \$1,050,000
- 방3, 화3, 5 에이커 전원 주택, 최신 수영장
2. 레스톤 싱글홈 \$855,000
- 방7, 화3.5, 워크아웃 부엌, 차고 2
-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3. 헌튼 럭셔리 타운 \$850,000
- 방3, 화3.5, 차고 3
- ▶ 703-489-6926

For Sale by Owner MD Jessup
Builders Model
55+ Condo : 4bd 3.5bt, 2 car garage
3,200ft, near 95 & 32 \$545,000
Phone : 443-838-5458
E-mail: vrupen@gmail.com

1. 챔틀리 하이 싱글 \$1,379,000
- 방4, 화4.5, 차고2, 콘크, 최고 학군 (포플라
트리 초, 럭키런 미들) 새 지붕 및 HVAC
새 페인트, 주방 가전 업데이트, 바닥 업그레이
드, 잘 관리된 집
2. 헌튼 콘도 \$579,000
- 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 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
3. 센터빌 스톤 케이틀 콘도 \$390,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빙트리 펫 리조트

어디든 여행갈 때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겨주세요?
여기 한인 2세가 운영하는 Pet Resort를 이용해 보세요!

<p>Ro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늑한 럭셔리 룸 •특급 Hotel급 특실 •경력이 풍부한 훈련사 •한적한 뒷동산 산책로 	<p>Groom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 선생님들의 풍부한 경력, 예술적 그루밍 •목욕 및 스킨 케어 •최신식 목욕 시설 •실내 및 야외 놀이 시설
--	--

*애견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한인 담당: 571-660-8182)

- 1호점 (본사/레스톤): 571-325-2994
1912 Association Dr. Reston, VA 20191
- 2호점 (플스처치): 571-799-8100
130 West Jefferson St, K9 Club, Falls Church, VA 22046
- 3호점 (알렉산드리아): 571-257-6420
6118 Rose Hill Dr, Alexandria, VA 22310


www.givingtreepetresort.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AWARDED
Porch HomeAdvisor BBB
Your Home Improvement Connection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신속한 A/S · 기술력과 서비스 · 경쟁력있는 가격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 눈썹, 아이라인, 입술
- 속눈썹/헤어 생장술
-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 스킨케어



443-722-592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사진관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Yami PHOTO STUDIO

Passport Photos Family Photos
Maternity Photos Wedding Photos

Photos & Video For Any Event!

Call: 513-570-7017
7023 Little River Turnpike #340, Annandale, VA 22003

JGL Construction Inc.

JGL 건설회사

“아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폼프 교체

571.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통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담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주거용 RV파크
연순익 \$35만
65스팟 장기거주 임대단지
운영쉬움 (정신인력-격정NO)
입지부서 대통령 분기 미들랜드
기\$2.6M, 오너직판/SBA가
텍사스 Serious Buyers Only,
mbrvparkllc@gmail.com
문의Text (214)284-0804

기타
남성용품 20년
미전국도매상
Gas Station, 7-eleven
공장도 가격, 타주직송
Self제작도움
(818)533-4788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10년에 한번 나오는
돈버는 세탁소
중가주 Santa Cruz
가격 \$869,000+Inv.
작년 연매상 \$920,000
월넷 \$40,000 이상
매상은 계속 증가중
셔츠 5.95, 바지 15
투피스 31.45 스웨터 16.75
***2년후 1마일내
1200유니하우스 들어옴
AJ Singh(영어)408-646-1060
주인 (Kim) 831-476-4589

구인
한식 쿡 구함
중식 쿡 구함
알라스카-숙식제공
(907)456-2060
(907)888-6666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출혈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간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중앙일보 핫딜 5월 가정의달 특별세일

5/31까지 무료 배송 Free Shipping

당뇨, 비만, 충치 안심하고 맛있게 즐기세요

타이거 사카커피 무설탕 30/50/100 스틱

사카커피 3 Packs (30 sticks) ~~\$36.97~~ **\$30.00**

5월 한달 무료배송

ZERO
슈가 · 콜레스테롤 · 당화로리
당 걱정없이 달도, 변비, 충치 안심하고
맛있게 즐기는 커피믹스

모공 축소, 콜라겐 생성, 손상된 피부 복원, 홍조, 건조에 탁월한 효과

프랑스 고급화장품 센티알리스 30ml

[Made in France] 프리미엄 세럼 ~~\$430~~ **\$104**

핫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홀쇼핑 **213.368.2611** 가계/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L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QR코드 찍고 핫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삼혈관 치료에 좋은 금육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육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2026 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WesternAve.#100 Los Angeles, CA 90020 | TEL:213-272-6031

독점 Aldie 고급 싱글홈

5,800sq, 40만불 이상 업그레이드한 집, 2024년, 방5, 화5 1/2, 최고급 빌더, Premium Lot, 더블 아일랜드, 최고급 기능 부엌, 특별하게 디자인된 인방 화장실과 Working Closet

\$1,725,000



Sold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엔드 유닛, 거라지 타운하우스, 집 전체 리모델링, 탁트인 고급 부엌과 새 주방용구, 새 지붕, 새 창문, 새 나무마루, 새 HVAC, 새 페인트, 남향 밝은 DECK과 FENCE

\$500,000



Contract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4, 화3 1/2, 2021년 지은 새단지, 탁트인 밝고 환한 구조, 나무마루,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고급 부엌 (업그레이된 Granite Countertop & SS Appliances), 넓은 Deck와 Fence

\$560,000



독점 Annandale 오피스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스, 교통편리, 넓은 주차장, 애너데일 중심가

\$28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